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5 1982년 8월 3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ugust 3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카유대의 새 시대 개막

전대통령 천여 환영인파속 오타와착

(오타와=특별취재반)전두환대통령은 28일 하오2시 오타와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한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캐나다 공식방문 일정을 순조로이 시작했다.

전대통령은 30일 트루도수상과의 정상회담및 공동성명발표를 포함한 4일간의 공식일정을 끝으로 아프리카 4개국 순방, 라스팔마스 원양어업기지 방문및 캐나다 방문이라는 집권이후 최대의 외국나들이를 끝마치게 된다.

전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태평양 우방국가이며, 한국동란의 혈맹인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서 대단히 기쁘며, 이번 방문으로 양국의 유대가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역관계가 주논제
~1차 정상회담~

(오타와=특별취재반)캐나다를 방문한 첫 한국 국가원수인 전두환대통령은 방문 3일째인 30일 상오10시부터 1시간동안 트루도 연방수상과 의사당내 수상집무실에서 단독 회담을 갖고 이어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양국 각료회담을 가졌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회담은 주로 교역관계에 치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국측이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 개최와 섬유류, 신발류, 전자제품, 금속제품등에 대한 캐나다측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캐나다측은 캔두원자로 2호기를 위시해서 곡물, 항공기재, 장거리 통신기재, 석탄등의 수입량 증대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아침 9시30분 길·라몬텡 국방장관의 안내로 샤토·로리에(호텔)앞에 있는 충헌탑(참전기념비)을 방문, 묵념하고 준비한 꽃다발을 헌화했다.

9시50분경 의사당내 수상집무실에 도착한 전대통령은 트루도수상, 장·마샹 상원의장의 영접을 받고 방명록에 싸인했다.

"캐나다는 한국의 혈맹"
전대통령 도착 성명

(오타와=특별취재반)전두환 한국대통령이 28일 하오2시 오타와 공군기지에 도착함으로써 한·가 관계사에 새 장을 열었다.

한국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캐나다를 처음 방문하는 전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여사는 이날 KAL소속 보잉747점보기 안으로 들어온 이규현 주 캐나다대사, 유병현 주 미대사 안내를 받으며, 트랩을 내려 에드·슈라이어총독 부처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약2백명의 교포들은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고 오는 공식수행원 18명및 40여명의 경제계 인사, 수행기자들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맞았다.

공항 군비행장에서 캐나다군 의장대를 사열한 전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통해 "한국의 가장 가까운 혈맹이며, 태평양시대의 동반자"인 캐나다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재하고, "한국 국민은 캐나다가 한국동란때 2만6천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했으며,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강력히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어 "한·가 양국간의 관계는 보다 밀접해 특히 무역면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 80년도에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이제 양국간의 협력관계는 원자력 개발, 재정, 기술및 자원 개발등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양 태평양연안국간의 유대가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대통령 도착성명과 앞서 있은 슈라이어총독의 환영사는 각각 한국말·영어로 통역됐다.

의장대 사열때 대원1명이 복장이 더워 쓰러지자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비켜간 전대통령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화사한 한복차림으로 마중나온 교민들과 약15분간 악수를 교환했다.

검정색 양복 대통령과 노란색 한복차림의 이순자여사는 공항 정문밖 1Km지점의 해보 대원들과 직접 맞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의장대사열중 더운 복장탓인지 대통령 통과를 수초 앞두고 대원1명이 쓰러져, 비켜가는 대통령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전대통령 일행은 환영순서를 끝내고 3시30분 총독관저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이대사관저뜰 교포 리셉션— 환영객과 담소하는 전대통령 내외(전대통령 한명 건너 왼쪽은 영부인 이순지여사, 대통령 오른쪽은 이규현 주캐나다 대사)

◆오타와공항 착륙즉시 캐나다의장대를 사열하는 전대통령. 한 의장대원이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졌다.

참전 상이용사 위문
기념품 시계 증정

(몬트리얼=특별취재반) 오타와 도착 2일째인 29일, 전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여사와 함께 오전9시15분 헬리콥터편으로 오타와를 출발, 몬트리얼의 군원호병원인 셍·앤드·벨르비병원에 도착하여, 한국동란 참전용사를 비롯한 약2백여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을 위문했다.

병원강당에서 마련된 환영식에서 전대통령은 모리스·카드레병원장의 인사말에 이은 연설에서 참전용사들의 자유와 평화에의 기여를 치하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금옥간호원을 비롯한 1백여명의 몬트리얼 교포가 병원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35명의 6·25참전용사들에게 기념품으로 대통령의 문장이 든 시계1개씩을 선물했다.

이어 대통령은 약30분간 휠·체어에 탄 참전용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담했다.

특히 몬트리얼 교민 정영섭박사의 딸 투실·정양과 아들 기창군이 싸인을 요구하자, 투실양을 번쩍 안아 올렸다. 전대통령이 교민으로 부터 싸인요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군 1명 실종
북한측은 "정치망명"

(서울)북한은 28일 미군1명이 비무장지대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와 정치망명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군은 이 미군병사는 북한군에 포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통신은 죠세프·화이트 1등병 (Pfc)가 북한 당국의 "친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당국은 화이트씨가 판문점의 대성동마을 근처에서 근무중 행방불명되었으며, 그가 북방한계선을 잘못 넘어들어 잤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측은 화이트씨가 28일 아침 북한으로 망명했다고 말했다. 북한통신은 화이트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은 잘못이며, 이같은 침략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서울북방 30마일 지점에 있는 캠프·케이시 주둔 미군 제2보병사단은 넓이 2.5마일(4Km)의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내에 수색대를 교대로 파견한다.

이번 사건은 79년 12월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이 실종된 첫 사건이다.

본사 특별취재반
◆유승민부장
◆이배은 오타와지국장
◆정관성 몬트리얼지국장
서울본사
◆윤국병 청와대출입기자
◆조병필 청와대출입기자
◆박태홍 사진기자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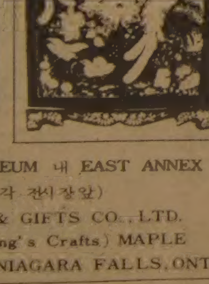
강화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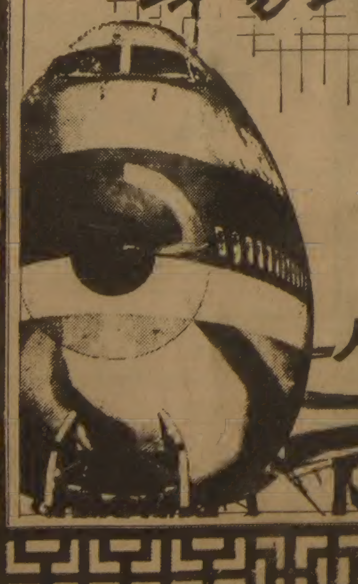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난금와상품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연극동호인 단체
발기모임

십여년 이민역사속에서 잠잠히 불태워온 연극에의 정열을 모두어 연극 동호인 단체를 발족코자 합니다.

이 단체는 연극예술을 연구하며 교민을 위한 제전을 마련하고, 때로 에트닉 연극제에도 참여, 정열과 예술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체의 예술성을 승화시키고, 교민의 정신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순수한 극예술 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극예술에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연극을 사랑하고 열의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참가하셔서 연극동호인단체 발족에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 때 : 9월3일(금) 저녁8시
◎ 곳 : 삼우스튜디오(58 WADE AVE 랜스다운 써브웨이에서 약간 북서쪽)
◎ 연락처 : 이장성 960-0074
김상옥 225-7980
이광민 274-8889

연극 동호인 일동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오타와, 외교관 경비강화

터키 무관 피살에 자극받아

(오타와)연방정부는 터키대사관의 무관 피살사건에 자극을 받아 터키대사관 경비 경찰및 사설 보안원을 증원, 24시간 철저히 경호토록 했다.

대사관 직원들의 가정도 경찰보호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27일 아침 출근길에 피살된 아틸라·올티켓대령의 범인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알메니안족 테러단에 소속된 범인에 관해 많은 정보가 경찰에 입수되고 있는 단계"라고 수사간부는 28일 밝혔다.

5개월전 터키대사관 상무관은 오타와의 아파트빌딩 차고에서 테러단의 총에 맞아 아직도 중태이다. 외교관이 피살된 것은 캐나다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잔·소베 하원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원의 보안을 위해 사무원, 의원, 기자등 의사당 출입자에게 패스를 가슴에 달도록 명령했다.

오타와 주재 각국 대사관은 안전상태와 비상대비 절차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오타와는 외국 외교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치는 곳이다.

오타와에는 한국대사관등 모두 195개의 대사관과 수천명의 외교관이 있다.

이들의 안전은 연방정부 경찰(RCMP) 책임이다.

각국 대사관중 자동개폐문, 감시카메라, 해병대원등을 어마어마하게 배치한 미국과 소련대사관이 가장 자체 안전에 신경을 쓴다.

터키대사관은 4월 상무관 피습사건후 연방경찰로부터 경찰증원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었다.

한편 피에르·트루도수상은 터키대사관의 무관 피살소식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해링턴 호숫가의 여름별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트루도수상은 "터키무관 살해사건은 충격적이고도 가슴아픈 소식이다. 이제 캐나다도 더 이상 테러리스트의 만행에서 면역이 되지 못한다"고 통탄하고 외무성에 조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외교관의 신변보호의 책임은 연방경찰(RCMP)에 있으나, 일단 사건이 터진 뒤에는 책임이 오타와 시경찰관할로 넘어간다.

일본교과서 수정

83년 봄부터 시작

(동경)일본정부는 26일 외교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일본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작업을 83년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이미 서울과 북경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장관은 교과서 수정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실시되어 오는 85학년도 신학기부터 사용될 교과서에는 수정된 내용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필요한 수정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질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와 국민은 과거 일본의 행위가 한국과 중국및 아시아의 여러나라에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내와 결의를 품고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마야자와 장관은 일본의 교과서 수정 결정이 관계된 나라들의 만족을 살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성명은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드리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시와 72년 일중외교관계 수립시 인정한대로 과거의 행위를 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을 비난하는 이웃 나라들과 외부간섭에 굴복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자민당내 여러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스즈끼 일본수상은 25일 교과서는 65년과 72년의 합의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딱딱한 감시·반대데모속에

1천여 교민 대사관저 리셉션

이규현대사 초청 리셉션시간인 하오6시, 대통령 일행의 차가 관저로 도착하자, 토론토의 한인교향악단(지휘 김송순) 단원20여명의 주악에 따라 전대통령, 이순자여사, 수행원의 순서로 입장, 현관에서 부터 정원 식장에 이르는 사이에 양쪽으로 줄지은 교포들과 하나하나 악수와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토론토교민 7백여명을 비롯, 몬트리얼, 벵쿠버, 에드몬톤, 캘가리등지에서 모인 교포 1천여명의 리셉션 참가 교포들은 1시간전 명찰을 교환했으며, 가슴에는 토론토한인회를 비롯, 각 단체가 합자부담한 태극기·캐나다기 뱃지와 전·트루도 초상이 박힌 환영 뺏지를 달고 이날의 리셉션 장소인 이규현대사 관저에 들어갔다.

교민들은 대사관저 입구에서 대사관 발행 명찰을 확인받고, 흉기 휴대 여부를 조사받은 뒤 관저 정원으로 들어가 대통령 일행의 도착을 기다렸다. 전원이 레이더 감식기의 문을 통과해야 했고, 여성들은 일일이 핸드백을 열어보였고, 보도진외의 카메라 휴대 입장도 금지됐다.

입장시 전대통령은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어 고맙다", "이민생활이 무척 고달프지요?"등 말을 건네주기도 하고, 핑크 반코트를 입은 한국여성에게는 "날씨가 쌀쌀한데 멋게 입어서 잘됐다"는 자상함도 보여주었다.

토론토교민 환영단 350커플은 지난28일 아침7시와 10시의 2차로 나누어 15대의 대절버스로 오타와록 떠났다.

이 일행 속에는 나이아가라및 키치너 한인회장등도 동행했다.

주행시간 5시간의 중간지점에서 도시락을 나눈 제1진은 하오1시반경 오타와에 도착, 공항 시청앞 국회의사당앞 등에 나누어 환영도열을 했다.

오타와 거리에 캐나다 국기와 나란히 즐비하게 꽂힌 태극기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고, 교포들이 손에 마다 내젓는 태극기및 우아한 한복차림의 교포여성들을 보는 사람마다 "원더풀"을 연발했다.

대통령의 뒤를 이어 악수를 나누면서 입장한 영부인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어요"하고 여성환영객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든파티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리셉션은 하오6시10분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 오기송 박사의 환영사에 이은 전대통령의 답사및 담화가 있은 뒤 뷰페식 칵테일 파티로 진행되었다.

오박사의 환영요지는 모국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5만 교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민족의 긍지를 살려 다민족간에 칭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교민상을 설명, 이민증가를 위한 특별배려 진력을 청원하는등 내용이었다.

담사겸 격려사로 전대통령은 12분간에 걸쳐 문화·언어·환경이 다른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며 조국을 빛내고 있는 교민들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국내외 동포들이 거시적으로 합심하여 조국선양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격려사를 마친 전대통령은 교민들과 축배를 들면서 20여분간 담화를 계속, "대사가 내는 파티는 내가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많이들 드십시오"하고 조크도 하고, 울타리밖에서 "김대중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는 수십명의 반정부 인사들에 관해 "일부 인사들이 반정부의사 표시를 하는데 저런다고 저들의 뜻대로 되는것도 아닌데··· ,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미소를 띄우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하여 환영객들의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환영 2일간의 짤막한 뒷얘기들

◆토론토한인단체 합동으로 만든 전대통령 환영 뺏지

◆환영뺏지 분배

전두환대통령 환영 토론토팀 700명이 10여대의 버스에 분승, 28일 아침 7시와 10시의 둘로 나뉘어 오타와로 향발-도중에 토론토한인회를 비롯, 각 단체 기부로 마련한 환영뺏지(전·트루도 초상)와 태극기·캐나다국기의 뺏지를 분배 받았다.

이날 출발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새벽4시부터 출발지점(401×더프린)인 광장에 달려온 교포는 차 속에서 수면부족을 반영하여 꺼뻑 꺼뻑······.

◆허탕친 노상환영

오타와에 도착한 원정 환영객들은 공항, 시청앞, 국회앞, 총독관저앞등으로 위치를 배정 받고, 다시 버스에 분승, 지정장소로 향했다.

국회앞(샤토로리에 옆)에 배치된 환영단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소식없고"격으로 멍청히 섰다가, "대통령께서는 다른 코스로 이미 통과를"이란 연락을 받고, 싱겁게 철수, 리셉션장으로 향했다.

노상환영에는 실패했으나, 외국인들이 "무슨 국기냐?", "그 옷 참 멋있다.", "어느 나라 옷이냐?"등 질문에 태극기와 여성한복 선전에는 크게 실효를 거둔셈이다.

◆태극기만 보아도 울먹

전대통령이 이번 아프리카 4개국 순방중 목격한 것 하나-"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교포들이 태극기만 보아도 반가워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

◆서로 악수하려고 밀치락.

이 대사관저 리셉션에 전대통령 일행이 들어올때와 퇴장때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려고 교포들은 다투어 밀치락거려 경호원들이 진땀.

이곳 규정상 무기 휴대를 안한 경호원들의 과잉경비 인상도···.

◆토론토를 옮겨다 놓은 인상

오타와 교민사회는 이날 고스란히 토론토 한인사회 축소판!

700여명 얼굴이 알려진 토론토교포들로 메워져 오타와의 한때가 토론토로 착각될 지경.

◆육사동기생 회포 풀다.

29일 몬트리얼의 원호병원 상이용사들의 위문을 마치고, 오타와 총독관저로 돌아온 전대통령은 4명의 육사 동기생(11기)들과 만나 하오5시경 약1시간동안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너무 닮은 형제

전대통령의 아우 전경환씨(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는 대사관저 리셉션 시간중 내내 교민들 속에 섞여서 교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각하와 꼭 닮았다"는 교포의 말에 "서울서도 시내에 나가면 대통령 으로 오인하는 국민이 많지요. 내가 키가 좀 클 뿐, 목소리도 형님과 똑같아 가끔 전화를 걸면 형수님(영부인)도 형님으로 착각할 때도 있답니다."하고 껄껄 웃었다.

◆대통령의 선물

이대사관저 교포리셉션이 끝나고 해산하면서 참석교포들은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기념선물로 대통령 초상이 새겨지고, 뒷면에는 태극기와 캐나다국기가 교차된 부조 메달을 하나씩 받았다.

"캔두 팔지말라"

"양심범 석방하라"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맞은 일부 교민들의 데모의 양상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전충림(뉴코리아 타임즈)발행인, 한삼수, 박정태씨등 일부 태권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과격파와, 또 하나는 광주의거 기념사업회, 민주건설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박찬도, 윤태순, 박찬웅, 윤용섭, 박재선, 임승철씨등의 온건파로 이들은 공항에서 부터 연도, 대사관저 밖에서 각각 데모를 벌였다.

과격파들은 "백정 살인마를 환영하는 창녀들아", "외세 물리치고 자주 통일 확립하라"등의 구호를 쓴 휘장을 자동차및 몸에 두르고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얼굴에 마스크를 쓰기도 한 온건파 데모 대원들은 "양심범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나라", "캐나다는 캔두를 팔지말라", '전두환은 초청하지 말았어요 한다"는 등의 구호를 각기 영어와 한국말로 표기한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를 벌렸다.

28일 오후 6시 가든파티가 벌어지기전 대사관저 앞에 도착한 데모 대원들은 입구 양쪽으로 나누어 행렬, 파티에 입장하는 교민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기도 했다.

데모 대원들이 밖에서 외쳐대는 구호소리는 교민 리셉션이 끝날때 까지 계속됐다.

과격데모대원 사진기자에 행패

특히 일부 태권도인들은 공항에서 데모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유승민부장에게 때려 죽인다고 위협하며 달려들었고, 경찰이 끝까지 사진을 찍어대는 유부장을 둘러싸 보호해 주기도 했으며, 실랑이는 약3분간 계속됐다. 데모대원중에는 토론토이외 지역 교민들도 있었다.

* 바로 잡습니다

26일자 본지 머릿기사「목회지망자에 경종」제하의 기사중 "교포 L씨의 경우 CCC에서 박사과정중 토론토대학 학부과정 편입이 거부됐다." 부분을 "교포 L씨는 토론토대학 1년을 마치고 CCC에서 박사과정중 다시 토론토대학 2학년으로 돌아갔다"고 바로 잡습니다.

전대통령 초청은 캔두판매 위해 캐나다 신문보도

캐나다가 전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이유는 작년 9월 트루도수상의 방한에 대한 답례라는 정치적 배려의 이면에 캔두(Candu)원자로 수출이라는 경제적 속셈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28일 전대통령의 오타와방문에 대한 이곳 신문들 토론토·스타, 토론토·썬, 글로브·앤·매일지의 보도 태세에서도 잘 드러난다.

토론토·썬지는 28일 제23면 1단 기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4일간 캐나다를 공식방문 했으며, 이번 방문으로 캐나다는 캔두원자를 추가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글로브·앤드·메일지는 30일 경제란 특집기사로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는 장래가 밝다고 전제, 한국은 약 2천메가와트급 캔두 원자로 3개 약150억달러 어치를 주문하게 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캐나다와 가장 큰 경쟁생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로를 제치고 과연 캔두를 추가 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30일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윤곽이 잡히겠지만, 캐나다는 작년 한국에 $4억4천6백만에 비해 1년만에 수입초과를 기록했다.

민간외교 강조 교포여성 환담

29일 하오 영부인 이순자여사는 총독관저로 오타와지역 학부모들 13명을 초청 약 20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교민 학부모들에게 "개개인이 한국을 대표한 외교관이라 생각하여 생활하며, 2세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고, 학부형들은 교민들의 생활실정을 전했다.

◆알 림◆

편집사정으로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 오늘 쉽니다.

행복한 부부의 코뮤니케이션 1

"동등"속의 "조화"

김 보 경(심리학박사)

수십년간을 함께 지내온 늙은 부부의 사진을 들여다 보면 그들이 같이 누린 연륜만으로 숙연한 감동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며, 아끼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관계,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묘약은 없는 것일까?

심리학지 김보경박사의 특별기고를 통해 특히 이민가정의 부부관계를 보다 전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을 알아본다.

◆김보경 박사

행복한 부부란 상호 여러면에서 일치하는 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결혼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성격이나 취미나 가정배경이나 교육정도가 비슷한 사람을 물색하게 되고 또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두 사람이 어딘가 형제처럼 서로 닮은 것도 볼 수 있다. 행복한 부부가 성격이나 취미나 사고 방식이나 심지어 외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것은 결혼 당초부터 서로 비슷한 사람을 골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 영향지우고 영향받는 사이에 더 비슷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의 불평을 들어 보면 대부분 "우린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 말은 바로 상호 일치하지 않아서 또는 서로 조화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이 원만치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전통적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등적 관계에서 비슷하게 되기 보다는 남편 중심의 일방적 관계로서 모든 것이 남편 위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채택해 왔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내의 복종이 미덕으로 간주되어 아내는 언제나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를 지켜오도록 강조되었다.

키도 남편보다 작아야 하고, 교육도 남편보다 낮아야 하고 직업도 남편보다 못한 것이라야 되었다. 남편이 언제나 강자로서 또는 절대자로서의 위치를 보유해 가는데 위협이 될만한 어떤 요소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간 동등한 입장에서 부부가 상호접촉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비슷해 지거나, 아니면 남편이 절대권을 발휘하고, 아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비슷해 지거나간에 부부간의 일치가 부부생활의 기본이라는 점을 전제해 두고 부부간의 코뮤니케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코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전달이란 뜻이다. 쇠끄치의 한 끝을 불에 달구면 그 열기가 다른 끝으로 옮겨가서 두 끝 전부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코뮤니케이션이라 한다.

병균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서 두 사람 모두가 같은 병을 앓게 되는 전염병도 코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코뮤니케이션이란 말도 부부간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의견이나 태도등이 어떤 수단을 통하여 옮겨가서 두 사람 다 비슷한 감정이나 의견 등을 갖게 되는것을 말한다. 부부간에 코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서로가 뜻하는 바나 원하는 바가 저항없이 신속히 상대에게 전달되어 부부의 손발이 척척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코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언어만은 아니다. 몸짓, 손짓, 또는 몸의 자세등으로 상대에게 보내는 모든 신호방법이 다 코뮤니케이션에 속한다. 그러나 언어가 가장 중요한 일반적 수단이므로 언어를 통한 코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부간의 코뮤니케이션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부부를 일치시킴으로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부부생활, 또는 가정생활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직업문제, 자녀양육문제, 애정문제, 시부모문제, 휴가문제, 취미문제, 종교문제, 건강문제 등등 항상 문제에 부닥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한다. 문제를 해결해 갈때 부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부부가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일치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항상 지연되고, 부부간의 관계는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해결을 위한 부부간의 코뮤니케이션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그 문제자체의 어려움보다 코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을 쉽사리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코뮤니케이션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해 버려 의사전달에 실패한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을 꺼내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납득할만큼 명료하고 조리있고, 또 상의하는 조의 태도로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태도로 한두마디를 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듣는 사람도 "또 쓸데없는 잔소리를 시작하는구나"하는 식으로 대하고 보니 서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또 문제를 토의하는 도중에 난데없이 그 문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과거의 일이나 상대의 약점을 찔러 결국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도 쉽게 본다. "당신이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 아니냐"등의 얘기가 나오면 문제해결의 희망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의논할 것이지, 그 이외의 말은 극히 통제해야 한다.

(계 속)

주식회사 황완현부동산 MLS HWANG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 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 SQF 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 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 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 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 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li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6년옵션, 월 $5,000 Net로 파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un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 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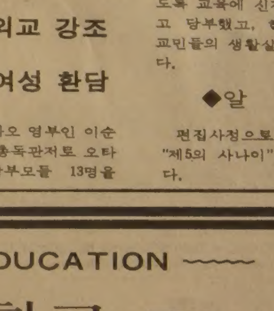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M3B 1Z3
TEL (416)449-8644~5(B) · 286-1548(R)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 ~~~

노스욕·한글학교
가을학기안내

아래와 같이 한글학교를 개강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 일시 : 1982년 9월9일(목) 오후6시30분
❖ 장소 : MAXOME 중·고등학교(70 MAXOME AVE.)
❖ 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등 4반으로 분반하여 훌륭한 교사진에 의해 책임지도 합니다.



노스욕한글학교 교장 이 인 용
학부형 회장 신 영 식

화보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

◆꽃다발을 드린 교포 어린이에게 싸인해 주면서 전대통령은 동심으로 되돌아간 듯 미소를 보여준다.

◆28일 오타와 도착 군비행장내에서 도착연설을 하는 전두환 대통령(뒤쪽에는 초청자인 에드워드·슈라이어 캐나다 총독내외가 서있다)

환 영

◆전두환대통령 환영리셉션에서 격려사후 이어 담화하는 전대통령 내외(왼쪽). 오른쪽 옆은 이규현 대사, 오른쪽 끝은 조영호 토론토노인회장.

◆몬트리얼의 원호병원 쎈트·안느병원에서 한국전 참전상이용사들과 옛 전투회고담을 나누며 전우애를 되살렸다. 이순자 여사는 위문품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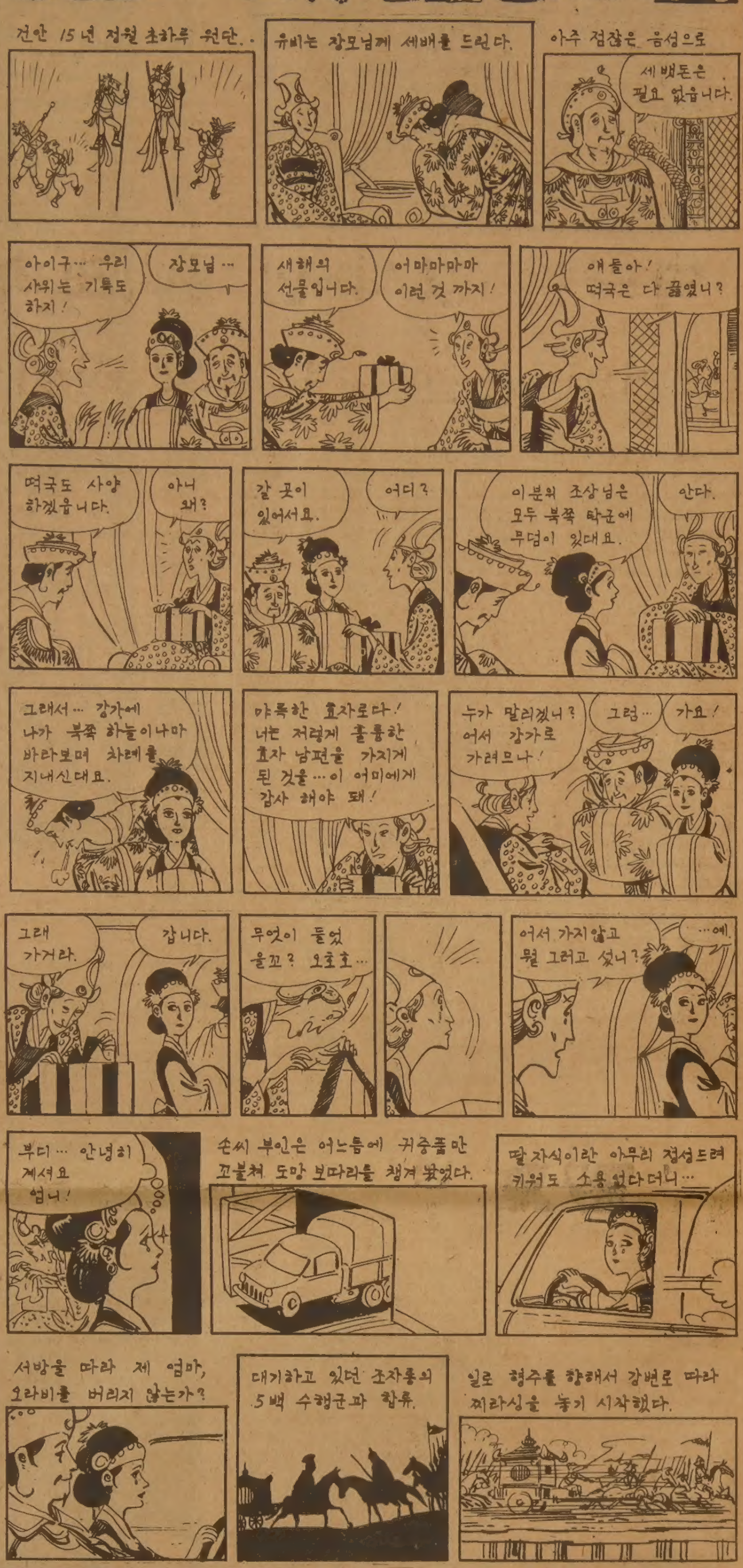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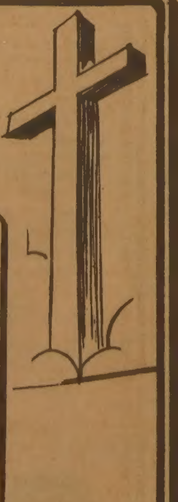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영화의 밤

"꼭 보십시요!" "감동적인 이 영화를"



1. 대종상을 받은 "사랑의 뿌리"

일시 : 1982년 9월10일(금) 저녁 7 시

❶씨나리오 최우수상

❷최우수 작품상

⊙주연 : 장동휘, 윤일봉, 도금봉 외.

일제 말엽 소록도의 비극과 김정복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교이야기로…

해방과 6.25를 거쳐 생이별했던 주인공 박학구씨의 두 자녀중 한 아들이 조련계의 임무를 띠고… 눈물없이는 차마 볼수 없는 이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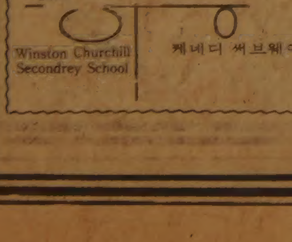
2. 기독교 십자성선교회작품 "사랑의 원자탄"

일시 : 1982년 9월11일(토) 저녁 7 시

◎감독 : 강대진

◎주연 : 이신재, 송승환, 박소미, 이형준

활석 손양원 목사 순교실화



장 소 : Winston Churchill Secondary School 2239 Lawrence E. 입장료 : 1불(장내 정리비)

● 한국에서 들여온 차에 붙이는 캐나다기와 태극기 스티카를 무료로 배부함.

주 최 : 승공문화협회 협 찬 : 교역자협의회, 토론토지부 장로협회

"교과서 85년부터 是正"

"政府책임아래 꼭 實現할터 過去 깊이反省… 聲明을 존중"

【東京26日=宋孝彬특파원】일본의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은 26일하오4시 그동안 심각한 외교문제로 발전해온 교과서歪曲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최종방침을발표,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비판에 귀를 기울여 정부의책임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야자와官房、日政府 최종방침 밝혀
"文部廣報 발행… 심의회서 檢定도 고쳐"

미야자와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발표된 일본정부의 수습방안은 앞으로 교과서검정에관해 오는9월에 열릴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 그 기준을 고쳐 韓·日、日·中共공동성명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밝히고 그 구체적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충설명했다。

미야자와장관은 구두설명에서 교과서검정에 관해 82년도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84년부터、이미 검정이 끝나 83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대해서는 3년주기의 검정제도를 1년앞당겨 85년부터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야자와장관은 또 오가와(小川平二)문부상의소견발표는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 검정기준이 고쳐진뒤 실시될 예정이며 수정되지않은교과서에대한경과조치로서 문부상이 각급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지침서인「문부광보」를 발행、韓·日、日·中共공동성명의 정신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야자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노베(須之部量三) 외무차관은 이날상오11시15분 崔慶祿대사를、이날 정오에는 駐日중공대리대사를 초치、담화문에 대한 배경설명과 담화문의 내용을 전달했다。

미야자와장관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담화는 다음과 같다。

①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은 과거에 일본의 행위가한국、중공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국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준것에 대해 깊이 자각하며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성과 결의를 굳게하고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65년 한·일공동코뮈니케중에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식을、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日·中共공동성명에서「과거에 있어서 일본은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데대해 책임을 통감、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밝혔다。이것은 일본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그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②이와같은 韓·日공동코뮈니케와 日·中共공동성명의 정신은 일본학교교육과 교과서의 검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돼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한국과 중공등으로부터 이러한점에관해 일본교과서의 기술에대한 비판을 받아왔다。일본으로서는 아시아의 近隣제국과의 우호·친선을 증진하기위해 이런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하겠다。

③이를위해 앞으로 검정에 있어서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를 거쳐 검정기준을 고치는데있어 전항의취지가 충분히 실현될수있도록 배려한다。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대해서는 앞으로 즉각 이같은 취지가 실현될수 있도록 조치하며 그동안의조치로서 문부상이 소견을 천명、전기 두가지의 취지를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④일본으로서는 앞으로도 近隣국민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노력하며 아시아、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생각이다。

政府、긴급對策會議

새 對應策을 各黨서 촉구

정부는 26일하오 金相浹국무총리서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日本의 역사교과서歪曲문제와관련、日本정부가밝힌 기본입장에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을논의했다。

日本이 歪曲된 歷史교과서를 85년부터 是正하겠다고공식태도를 밝힌데대해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들은 26일『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라고 反撥을 보이면서『정부는 이제 새로운次元에서 강력한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民正黨은 이날하오 의원세미나가 열리고있는 全北內藏山호텔에서 긴급 黨職者회의를 열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權翊鉉사무총장은『日本이 즉각시정이 아닌 2년후 修正견해를 밝힌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일』이라면서『日本정부는 앞으로 韓日문제가 더이상 악화되지않도록 사태를수습할 책임이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民韓黨은 금명간 총재단과 黨간부 연석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정식 黨論키로했다。

劉沃祐총재권한대행은『이제 韓·日관계는 새로운 局面을 맞았으며 이에따른對日자세도새로이정립할싯점이 됐으며 당분간 정부의 대처방안을 注視하겠지만 이싯점은 超黨派的차원에서 대처해나갈 상황으로 임시국회소집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한뒤『우선 국회 外務·文公委등 관련상위의 소집여부등을 검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金珍培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정부는 日本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며 역사책이 사실그대로 쓰여지도록 즉각 외교적인강경조치를취할것』을촉구했다。

국민당의 李成一대변인은 이날성명을통해『日本이역사적過誤를美化시키려는 구차한 변명을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치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이와함께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韓日양국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日本정부가져야할것임을 명백히한다』고 지적했다。

開途國협력 制度化

全대통령、阿洲巡訪결산 會見 "南南유대 開發前線필요"

◇26일자정 (한국시간) 세네갈 大統領宮에서 아프리카巡訪에 관한 靑瓦臺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全斗煥대통령。全대통령은 南南協力의 신기원을 이룩할 개발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카르(세네갈) 25日=聯合】

【다카르=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25일하오3시(한국시간 26일자정)한국과아프리카 여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은 과거엔 역사의 수동적 객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역사의 능동적주체로서 세계사의 창조에 앞장설 대장정에 나서야한다고 전제、開發前線 형성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그러한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능력이미치는 범위안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국제협력에 기여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순방 마지막국가인 세네갈에서 수행한 청와대 기자들과 환담하는가운데『우리앞에 놓인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위해 자조자립정신아래 남남협력의 신기원을이룩할 개발전선을 형성할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이 지구상에서 절대빈곤이 추방되지않는한 진정한 세계평화는 달성될수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숙소인 세네갈의 대통령궁별실에서 50분동안 환담하며『우리는 앞으로 개도국간의 상호의존 보완관계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을바탕으로 개도국의 인력및 기능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아프리카 4개국순방을 결산하면서『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있던 아프리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되었을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나라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데도 크게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하고『우리와 아프리카 여러나라간에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을 발견했으며 또 그기반을 구축한것도 큰성과로 꼽지않을수없다』고 평가했다。

全대통령은 또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의지도자들에게 한반도의 정세를 비롯、우리가 처해있는 입장을 설명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등 한반도평화정착에관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시킨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앞으로 지속적인 한·아프리카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것인가라는 질문에대해『한번 약속하면 무슨일이있어도 꼭지키고 이웃나라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참다운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아프리카 여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데비해 개발기술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앞서있는 우리나라와 협력및 합작개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어제 캐나다向發

【다카르=尹國炳특파원】9박10일간의 아프리카 4개국순방을 모두끝낸 全斗煥대통령은 26일상오 10시50분(한국시간 하오7시50분)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마지막 방문국인 세네갈의 다카르를떠나 다음순방국인 캐나다로 향했다。

全대통령은 다카르 출발에 앞서 이날상오 대통령궁에서 디우프 대통령과 세네갈방문결과를 결산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全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끝내고 다카르 요프 공항에도착、디우프대통령을 비롯한 세네갈측 고위인사들의 따뜻한 전송을받으며 다카르를떠났다。

文化·投資협정등 추진 阿洲開發銀行 가입도

韓·세네갈頂上 공동성명

【다카르=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과 아부두·디우프 세네갈대통령은 26일하오 韓·세네갈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양국정부의 결의를 강조했다。

全대통령의 2박3일간에걸친 세네갈공식방문을 결산하며 발표한 韓·세네갈공동성명에서 양국대통령은 두나라간의 협력관계증진과관련、지난79년4월24일 서울에서 체결된 문화협정의 시행을위한 議定書와 海運협정、2重課稅방지협정、투자보장 협정을 각각 체결하기위해 적절한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것에 합의했다。

양국대통령은 한국이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가입할것과동 가입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관계를 가일층 증진시킬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全대통령은 세네갈및 감비아 聯邦성에관해 세네갈 아대통령에게 축하를 표했고 디우프대통령은 全대통령의 평화통일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관계당사자간의 진정하고 永續的인 和合에 기초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이고 한국적인 해결을지지하는 세네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한국이 금년11월 다카르에서 개최되는 제5회 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세네갈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대표단은 진정한 南南협력증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세네갈의 산업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구체적인 각종조치들에 관해 검토했다고 공동성명은 말했다。

양국대표단은 또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생산적이고 평등한 관계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관련、상호존중과 정의에입각한 신세계 경제질서의 시급한 재편성을 주장했다。

양국대통령은 모든나라가 평화공존과 內政간섭의 원칙및 주권존중과 영토보전의 諸原則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같이 했다。

세네갈대표단은 全대통령에게 88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颱風주의보 嶺南 南東 해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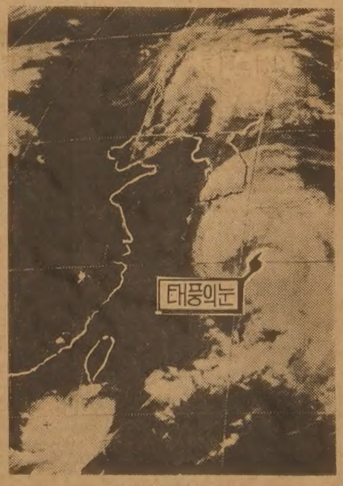
오늘下午 영향권… 1백~2백mm 豪雨

제13호태풍 엘리스가 계속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남해해상과 동해남부해상、영남동해안지방이 태풍권에 들어 이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중앙기상대는 26일 하오3시 현재 제13호태풍 엘리스가 일본九州남쪽 1백70km해상(북위29·5도、동경1백30·7도)까지 북상、매시10km의 느린속도로 서서히 북진하고 있어 27일 상오9시께에는 일본九州남단에 도달할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기상대는 이날하오 6시께부터 우리나라 남해해상이 태풍권에 들어갈것으로 보고 하오6시를기해 남해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이날밤 8시를기해 영남남동해안지방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했다。

기상대는 중심기압 9백40밀리바에 초속45m의 폭풍우를 동반한 A급태풍이었던엘리스가 북상과정에서 중심기압9백55밀리바、중심최대풍속40m인 B급태풍으로 약화됐지만 중심에 많은비바람을 동반、태풍권에 든 지역에는 20~25m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4~6m 높은파도에 예상강우량 1백~2백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6일하오3시현재 태풍엘리스는 북위29·5도、동경1백30·7도의 일본 九州남쪽 1백70km해상까지 북상、우리나라 남해해상과 동해남부해상、영남 남동해안지방이 태풍권에 들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26일하오3시 기상위성이 보낸 태풍의눈】

社會漫評

"日本은 是正하고 颱風은 歪曲하라…"

地平線

워싱턴에서 한남자가 斷種수술을 받았다。수술자체는 완벽에 가까울정도로 잘되었다。하지만 의사는 수술후 얼마동안은 피임효과가 없다고 말해주어야 한는것을 깜박잊었다。그남자의 부인은 급하게도 임신을하고 여자아이를 순산했다。▼모처럼의 斷種수술후에 아기를얻은 이부부는『원치않은 아기를 갖게되었으니 18세까지의 양육비20만달러 (1억5천만원)를 지불하라』는 소송을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했다。재판관은 원고측의주장을 깨끗이 받아들인끝에『아기를기르는데는 즐거움도 있다。원고는 피해만을 내세우고있으나 기르는「즐거움값」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멋진판결을 내렸다。이는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의 한토막이다。▼시민의 권리가 신장되어있는 미국은 갖가지 소송이 많은 나라다。정확한 통계는 알수없으나 인구에비해 소송건수와 변호사가 흔한 나라로서 미국은 첫째나 둘째쯤 꼽히지 않을는지 모르겠다。파란눈의 미국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들로부터도 걸핏하면「수」(소송) 하겠다는 애기를 쉽게 들을수 있었다。▼그중에서도 의사들의 잘못진찰이나 잘못치료로 빚어지는 손해배상에관한 기사는 미국신문들에 곧잘 실린다。중년부인의 甲狀腺수술에 실패하여 그부인이 뇌에 異常을 일으켜 병원측은 1백60만달러를 지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또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싸우다 넘어져 뇌를 다쳤는데 의사가 뇌의 손상을 재빨리 찾아내지못해 치료가늦어져 반신불수로된 장애자가족에게 병원측이 배상금 4백만달러를 물게된 事例도 있었다。미국의 경우 환자들의 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하는 율은 40%정도라는것이다。▼한국의료기관들이 페니실린계 항생제 사용을 기피해가는현상이 심각할정도에 이르렀다는 보도다。최근 페니실린계의 엠피실린을 맞은 환자가 충격사한데대해 병원측이 1억4천5백만원을 배상하도록 법원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라한다。미국서는 의료과오보험이 널리 보급되어있다。70년대에 절정을 이룬 미국소비자보호운동이 猛威를 떨침에 따라 환자들의 권리주장이 격증하면서 발전한 현상이다。▼배상금을 가장빈번히 치르는 미국外科醫의경우、한 의사가 1년에 약2만달러라는 높은 보험료를낸다고한다。의사와 환자의 권리가 對等한 미국처럼 한국 환자들의 권리도 좀더 신장돼야 할것이다。페니실린계 항생제 사용기피보다 仁術의 궤도이탈같은것이 기피돼야 하지않을까。

한국일보

우리의確實한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모짜르트 음악학원 학생모집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폭발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 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저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영남골프토너먼트

아래와 같이 친목을 갖고저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가를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9월11일(토) 오후1시
－장 소 : Richmond Hills Golf & Country Club (Hwy 7 & Bathurst 북향우쪽)
－참가자격 : 영남향우
－회 비 : $35(식사포함)
－접수자 : (우천시는 연기함)
서 261-2197 심 743-5830
안 745-1322 주 741-0930
최 247-1090 우 851-4717
서 249-6830 이 622-0219
심 741-7907 최 745-4684
－시 상 : 그로스 1, 2, 3등 네트 1, 2, 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장려상, 행운상, 향우상 (※각종 부상이 있음)

주최 : 영남향우회 일동

全대통령 會見 一問一答 〈要旨〉

"개척정신으로 資源개발해야 그들은「빵만드는 技術」필요"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이번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4개국을 순방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프리카에 참 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검은 대륙」으로만 알려져 있어 사람도 살기 어려운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기후도 견딜만하고 많은것이 처음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천마디의 말을 듣는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말이 있듯이 직접와서보고 확인하는것이 대단히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느꼈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프리카 4개국순방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4개국원수들과 단독회담을통해 인간적으로 가까와질수있었고 서로를 깊이이해할수있는 좋은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결코「잠자는 대륙」이 아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보다 기술분야가 발달되어 있어 모든 분야에서의협력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있다는것을 확인하게됐읍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잘 분석하면 오히려 진출하기쉬운곳이 바로 이지역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었읍니다.

—이번 아프리카 순방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읍니까.

▲이지역은 비동맹의 중심세력으로 국제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남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같이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방문을 계기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줌으로써 한국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읍니다.

이번의 방문국은 비록 4개국이지만 세네갈 만해도 서부 아프리카 6개국 공동체의 주도국가이기 때문에 이6개국전체에 보도가 나가는등 많은 아프리카국가들에게 우리를 알릴수있게되었읍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우리도 아프리카를 크게 이해하게되었읍니다.

국가원수끼리 만나서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우의를 돈독히 한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등 여러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기반을 조성한것도 중요한성과라고 하겠읍니다.

이들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켰읍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도자들은 우리의 통일방안 특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지하게 되어 각국과의 공동성명에도 이를 모두 포함시켰읍니다.

경협분야에서는 이지역의 무한한자원과 우리의기술을 연결하는 방법이 많이 토의되었읍니다.

자원개발 사회간접시설에대한 투자에 참여하는것도 좋은방법이며 기술이전을통한 협력도 매우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을가진 지역이고 우리와 이지역간의 협력의 문도 이제 확실하게 열리게 되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방문의 성과는 기대했던것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지역과 우리와의 유대를 더욱공고히발전시키기위해 각국의 원수들을 초청하여 흔쾌한수락을 받았읍니다.

—이번순방기간동안 개발도상국간의 협력문제를 특히 강조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구상은.

▲이번에방문한 아프리카 4개국은 다같이 피식민의 경험을 치른개발도상국으로서 이들이 자국의 국가발전을 위해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것을보고 깊은감명을받았읍니다.

우리와 같이 개인의자율을 바탕으로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하고있는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빵그자체가 아니고 빵을만드는 기술이었음을 이번 기회에 확인했읍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발전경험에 지대한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와 제휴할 결의를 분명히했읍니다.

불과 30년전만 해도 그들과 다를바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들의 국가발전

우리는 앞으로 개발도상국간의 상호의존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인력과 기능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능력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국제협력에기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강구하고자합니다.

"警戒心안주는 방향서 協力 阿洲는 잠자는 大陸이 아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韓·阿협력을위해 바람직한 방향은.

▲이번 순방국들은 과거 모두 피식민의 경험을갖고 있어 선진국에대해 경계심을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들국가에 경계심을 주지않는 방향으로협력을해나가야할것입니다.

한번 약속을하면 무슨일이 있어도 꼭 지키고 이들나라에실질적으로기술을향상시켜줄수있는착실한협력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국민들이 결심만하고 개척자정신으로 이곳에 나온다면 진출할 분야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지역은 자원이 많으나 이를 개발하는것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문제등을 감안할때 어려운 점이 적지않으나 이러한 사회간접시설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수있는 계기를 만들수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한다면 상호 국가이익에도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기술인력등이 이지역에 진출할 분야가많다고 봅니다.

농업수산업분야등각분야에걸쳐아프리카사람들을 우리나라에초청하거나우리의인력이현지에나와기술교육이나 훈련을시켜 그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도움을주어야 할것입니다.

社說

아프리카는 가까와졌다 —全대통령 巡訪成果와 푸른 우리里程

아프리카는 이제 좋기찬 活氣와 밝은 可能性이 충만된「希望의 大陸」으로서 우리앞에 부각되었다. 지난날 일부先進國 교과서에 쓰여진 이른바「잠자는 大陸」이니「暗黑의 大陸」같은 표현은 이미 韓阿協力의 새時代로 접어든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다.

오늘날 韓國人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友好的 實質協力증진의 新境地를 뜻한다.

이는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巡訪과 頂上外交의 여러가지 成果중에서 으뜸가는 보람이라고 평가된다. 때마침 全대통령은 26일 하오 아프리카의 마지막 巡訪國인 세네갈에서 디우프대통령과 더불어 開發途上國들의 힘의 조직화와 양국간의 相互補完的인 經濟協力증진등을 다짐한 共同聲明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公式日程을 마치고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 도착하였다.

이에 하루 앞서 全대통령은 세네갈의 首都 다카르에서 수행중인 靑瓦臺출입기자들과 記者會見을 갖고 阿洲巡訪頂上外交를 긍정적으로 결산하기도 했다.

우선 全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의 밝은 징표로서「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發展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프리카人들의 까다롭지않은「순수성」을 찬양하였다.

이번 巡訪外交의 成果에 관해서는 親善的 紐帶의 강화와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한 지지 확보, 그리고 經濟協力을 비롯한 다방면적 協力의「가능성과 기반을 조성한것」을 들었다. 이 지역의 무한한 資源과 우리의 技術및 經驗蓄積을 연결하는 協力의 증대가 現實的 日程에 올랐음을 느끼게 한다.

開發途上國間의 協力문제에 관해서는 다같이「歷史의 能動的 主體」임을 自體確認하는데 입각한 南南協力과「開發前線」형성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相互依存的 補完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특히 開發協力에 있어 韓國의 寄與할바가「人力과 技能開發에 중점」을 설정할것을 내다보았다.

韓阿協力의 方向에 있어서는 資源開發과 社會間接資本시설을 위한 韓國의 投資및 技術이전이 강조되었다. 이 경우 韓國의 協力정신은 信義의 준수와 경계심을 주지않는 親近性 그리고 阿洲友邦들의 自立능력을 돕는 技術전수라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韓國은 中進國이지만 같은 開途國이며 그「開發前線」參與作風은 부담없는 誠實性으로 감명되어야 할것이다. 일부 先進國에 보는 오기나 까다로움은 우리와는 인연이 없다. 友邦국민들 속에 긍정적 韓國人像을 심어놓을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는것이다.

무릇 協力증진의 바탕이 될 國力의 要素로는 資源·工業力·資本·裝備등物質的 요인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교육받고 부지런하며 기술을 갖춘 人力 그리고 對外的 이미지가 좋은 國民性과 外交의 質도 중시되는 법이다. 앞으로 阿洲友邦에 가는 韓國人 각자가 조국의 좋은 인상을 대표하는 外交官的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오늘의 時代的進運은 보다나은 未來를 창조하기 위한 活力의 용솟음이 新生·開途國들에 뚜렷함을 헤아리게 한다. 그리고 歷史的관점에서 全대통령의 이번 阿洲巡訪外交는 頂上수준에서 최초의 것이자,「세계속의 韓國」이 아프리카大陸에서 새로 開發協力의 모범을 창조하는 주도적 定礎작업임을 평가하게 한다.

바야흐로 韓阿協力의 本軌道進入이라는 새時代의 門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 겸허하고 부담감없이 터놓고 믿을수 있으며 빈말 대신 實質을 숭상하는 韓國的 經協作風을 미리 다져나가야 하리라고 믿는다. 보람있는 大長征의 靑信號가 아프리카大陸의 友邦들을 향하여 다정하게 손짓하고 있음을 본다.

관심끄는 通貨추세 —급격한 方向전환에 신중기해야

지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通貨의 팽창추세에 대하여는 두가지의 색다른 견해가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하나는 8월9일 金埈成부총리에 의하여 표명된 것이다. 그는 7월말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32.5%나 된데서 나타난 통화의 과다공급은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言明하였다(한국일보 8월10일자보도).

그런데 그 다음날인 10일에 있은 民正黨의 6·28및 7·3조치에 관한 공청회의 공술인으로 나온 한국개발원(KDI)장은 통화량증가는 종전의 私債자금이 저축예금과 요구불예금형태로 전환한데 지나지 않으며 통화회전속도가 減少하여 인플레이션의 염려는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

거의같은 시기에 밝혀진 이들 두가지 見解는 흥미로운 일이며 국민의 큰 관심을 끌기에 足한것이다.

올들어 지난7월말까지 요구불예금과 현찰의 合인 통화량은 36.9%나 늘어 당초 당국이 예정한 20~22% 수준을 상당히 웃돌게 되었다.

통화량증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지표는 一般銀行의 요구불예금회전속도다. 우리가 보통 돈이 돈다고 할때에 그것은 통화량에 돈의 회전속도를 곱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령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돈의 회전속도가 느리면 통태적으로 본 통화량은 그만큼 늘지 않은것과 같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6월말까지의 요구불예금 회전속도는 1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작년 1월~6월간의 회전속도는 한달평균 21.8회였고 금년중 같은기간에는 23.9회였다. 따라서 회전속도는 금년들어 9.6%가 빨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말한바 KDI원장의 통화회전속도감소라는 견해와는 딱 들어맞지않는듯한것이 한국은행의 조사통계결과다.

그동안 여러 人士들과 기관에서 통화량의 급증추세를 염려하여온것이 사실이다. 私債파동을 수습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늘리지않을수 없었음은 몇차례에 걸친 당국의 발표에서 이미 잘 알려지고있는 일이다.

8월들어서 당국은 총 통화의 年平均증가율은 30%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아래 물가추세·자금사정·국제수지동향등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할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과 아울러 세출삭감 정도를 웃도는 세수입결함과 추곡수매자금방출전망을 고려에 넣으면 이제부터는 民間부문여신은 상당한 정도로 제약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신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면에서 더한 수입둔화때문에 국제수지적자는 당초계획보다 줄어들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런 전망은 또 국내금리의 내림폭이 국제금리의 내림폭보다 더 큼으로써 外資도입 不振과 元利金상환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한편 이는 또 元利金상환기업의 자금수요를 동시에 촉진하여 그만큼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케 될것이다.

이미 국산기계구입자금과 연불수출 지원금융및 주택업자에 대한 자금지원한도가 바닥을 보여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이다. 기업의 在庫증가에 따른 자금수요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금사정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다행히 금년들어 輸入상품가격은 小幅이나마 계속 떨어져서 아직 物價安定에 있어서의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오고 있다.

이런때일수록 정부와 中央은행당국은 모든與件과 전망을 잘 성찰하여 신축성있는 通貨관리로써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급격한 方向전환은 금물이며 특히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일에 깊은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세네갈

"故鄕에 온것같아 피로도풀려" "앉으란대로 앉아야지요" 조크

많은것 意見일치

○…全斗煥대통령과 디우프 대통령은 25일 상오 11시30분(한국시간 하오 8시30분) 단독회담을 끝낸후 대통령궁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대각료회담장에 입장, 양측의 토의결과를 보고받았다.

디우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장시간에 걸친 단독회담에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많은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양해가 되면 확대각료회담결과를 세네갈측에서 피압수상이, 한측에서 金埈成부총리가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이에 양측대표가 회담결과를 보고했으며 보고가끝나자 全대통령은『이번에 세네갈을 처음 방문했으나 마치 고향을 찾아온것과같은 아늑함을 느꼈다』면서『여기서 하룻밤을 자고나자 그동안 여정에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다』고 인사했다.

全대통령은또『각하와나는 친 형제가 10년만에 만난것처럼 우정에 넘친 분위기속에서 모든 共同관심사를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협의했다』면서『여기에서 논의된것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를희망한다』고피력.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고아원을 방문, 한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다카르=聯合】

진출할 분야많아

○…全斗煥대통령은 아프리카 마지막 순방국인 세네갈을 떠나기 하루전인 25일하오3시(한국시간 26일자정) 수행기자단과 회견, 아프리카순방의성과와 이를바탕으로한앞으로의구상을 소상히 피력.

이날 낮 디우프대통령주최 공식오찬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아프리카순방의 공식일정을모두끝낸全대통령은 숙소인 대통령궁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회견, 이번 아프리카 순방의 성과가 의외로 컸음을 거듭 강조.

全대통령은 순방소감을 묻자『한국에서 생각할때 아프리카는 모두가 검은것으로 느꼈는데 직접와서보고 자주 접촉을 해보니 정을 느낄수있는 곳』이라면서『이제는 어떤 사람이잘생기고 못생겼는가를 구별할수있고 관상까지 볼수있을 정도가 됐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나이지리아에서 한교민은 사진을 찍은후 하룻만에 사진을 내주는 기술을 갖고와 현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고 또 가봉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한교민은 양복을 잘 만들어 크게 성업하고 있더라』고 소개하면서 작은 기술이라도 진출할수 있는 분야가 많은 곳이 아프리카지역이라고 했다.

카메라앞 포즈도

○…25일 하오(한국시간) 단독정상회담을 가진 양국원수는 회담에 앞서 대통령궁 2층접견실에서 훈장을 교환하고 잠시 환담.

이날 하오6시25분 응접실에 들어선 양국대통령은 악수를나누며 디우프대통령은 全대통령에게 세네갈최고훈장인 국민대십자훈장을, 全대통령은 디우프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주었다.

양국원수는 이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양국의 사진기자들을 위해 약2분동안 포즈를 취했다.

디우프대통령은 포즈를 취하면서 취재기자들을 보고『지금 세계각국에서 실권과권력을 가진사람이 바로 여기서있는 언론인』이라면서『이들 마음대로 앉으라면 앉아야하고 서라고하면 서야한다』고 조크.

디우프대통령은 이어『우리를 봐주실수있으면 빠른시간내에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기자들에게 특청을 하기도.【다카르=尹國炳특파원】

韓·세네갈共同聲明 (요지)

▲양국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세네갈공화국정부간에 협력관계를 증진할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사태가 종식되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대표단은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검토하고 특히 지난 3년간 同 협력관계가 증진되어온것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양국관계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양국정부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양국대표단은 진정한 南南協力 증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이 세네갈의 산업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각종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해 검토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현하 제반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관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유엔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피력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이와관련, 南아프리카의 정세에 관하여 南阿정부의 인종차별정책과 나미비아 不法점령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이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 특히 아프리카 국민회의와 西南아프리카 국민기구의 투쟁에대한 양국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대통령은 모든나라가 평화공존과 内政불간섭의 원칙및 主權존중과 영토보전의 제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이러한 정신에서 특히 남아프리카·중동 및 아시아의 긴장지역을 비롯한 세계 긴장지역에 관하여 검토하고 유엔 특별위원회

▲양국 대표단은 中東분쟁에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이스라엘이 1967년이래 점령지에서 전면철수하지 않는한 평화가 정착될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대표단은 국제경제 문제를 검토하고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이와관련하여 상호존중과 평등에 입각한 新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현재 국제경제질서의 시급한 재편성을 주장하였다.

遺傳工學 육성法案 與野공동 特委추진

民正黨은 오는 9월정기국회에 遺傳工學육성법안을 與野공동으로 제출키위해 15명의 의원으로 이법안의 起草特委를 구성키로 했다.

李鍾贊총무는 26일 이법안의 起草特委구성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이법안이 국회 法司·經科·商工·保社·農水産委등 여러常委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법안의 원만한 처리를위해 관계常委의 與野의원으로 特委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미비아의 날」맞아 李外務 메시지發送

정부는 26일 제28차 유엔총회 決議(73년12월12일)에따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나미비아의날」기념 특별회의를 축하하는 李範錫외무부장관 명의의 메시지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하였다.

정부는 이 메시지를 통해「나미비아인의 합법적 권리회복과 독립지원을위해 노력해온 유엔의 역할과 제반결의를 적극 지지하는 한국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세계 각국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나미비아인이 독립을 쟁취할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나미비아의 조속한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노력에 호응, 나미비아 연수원기금 5만달러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民正, 議員세미나

民正黨은 26일부터 3일간 전북 内藏山관광호텔에서 소속의원 1백40명이 참석한가운데 의원세미나를열고 9월정기국회운영방안을 비롯, 黨政협조문제, 83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경제운용방안등을 논의한다.

이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정부측으로부터 당면재정·경제운용방향을, 黨간부들로부터 黨활동기본 계획·정기국회운용방향등에 관해 설명을듣는 한편 5개分委별로 효율적인 黨政협조방안에 관해 토의를 벌인다.

◇27일=경제운용의 방향과 83년예산안편성기조(鄭寅用경제기획원차관) ▲재정금융정책방안(金興起재무차관) ▲6·28및 7·3조치 보완대책(陳懿鍾정책위의장) ▲黨활동평가및 기본방향(權翊鉉사무총장) ◇28일=▲分任토의결과발표 ▲정기국회 운용방안(李鍾贊총무)

美國際교류처 名稱 海外공보처로 還元

駐韓美國大使館은 26일 美國국제교류처(USICA) 명칭이 지난 24일부터 美國해외공보처(USIA)로 환원됐다고 발표했다.

美國해외공보처는 지난 78년 美國국제교류처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됐다.

本社來訪

▲金重源씨(韓一合纖대표이사) 인사차

政局往來

各黨 더이상 日 外交 말장난에 一喜一悲 할때 아니다

◆세미나도중 歪曲대책 陣中會議

全北 内藏山호텔에서 들어간 民正黨의원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첫날인 26일 하오 교과서歪曲파동에 대한 日本측의 태도표명에 따라 세미나도중 당직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는「陣中會議」를 열기도.

한편 서울의 중앙당에 연락하는등 부산. 의원들이 모두 떠난 중앙당에는 李相宰사무차장과 李鍾律부대변인이 남아 현지와 긴밀전화를 하는등 수시로 연락을하며 당사를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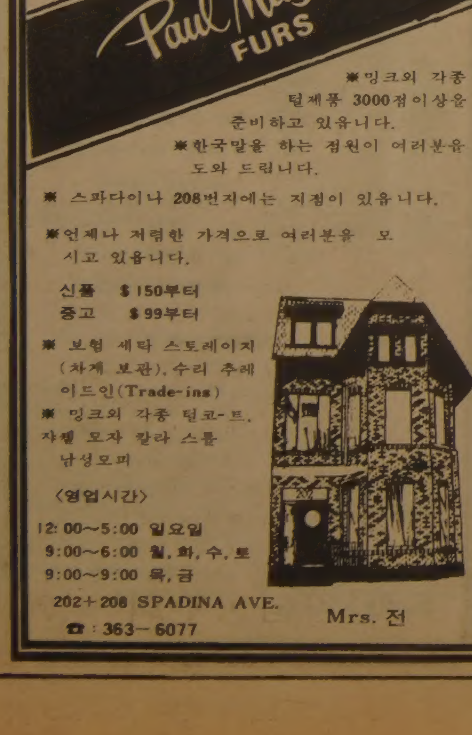
소속의원 1백52명중 해외출장등으로 不參한 12명을 제외한 1백40명의 의원들은 이날 상오8시 당사에 모여 버스3대에 分乘하여 떠났는데 이번 세미나는 특히 日本교과서歪曲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日本軍國主義의 足跡을 다룬 기록영화「軍閥」까지 관람할 계획.

◆日人들 머리가 모자라는것같다

◆韓·日의원聯盟총회 보이코트를

◆85년에가서야 고려해보겠다니…

◆외무부 갑부들 갑자기 몸조심



이란·이라크 다시 擴戰

이라크機, 하르그島 맹폭
國境전역서 戰鬪치열

【니코시아·런던25日UPI聯=聯合】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란·이라크전쟁은 25일 이라크공군기들이 이란의 원유저장·선적장인 하르그島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다시 화전일로에 접어들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의 관영INA통신은 이날 이라크 전투기들이 페르시아灣에 위치한 하르그島에 맹폭을 가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통신은 이날하오 6시부터 개시된 하르그島 폭격은 이란이 이라크영내 바스라港 부근 주거지역및 산업시설들에 대해 무차별포격을 가해온데 대한 보복조치로 단행됐다고 밝히고 외국선박들은 하르그島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란관영 IRNA통신도 이라크와의 국경전역에 걸쳐 다시 치열한 전투가 재개됐으며 이란軍은 이 전투에서 이라크의 주요거점에 포격을 가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통신은 24일밤과 25일아침 두차례에걸쳐 감행된 이라크전투기들의 일람市공습이 이란軍의 대공사격에의해 격퇴되었으며 바스라港주변에서의 이라크탱크부대진격도 아울러 물리쳤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테헤란방송은 이라크가 하르그島를 계속공격할경우 이라크석유및 공업시설을 파괴하겠다고경고했다.

◇PLO女性 대원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여자대원들이 25일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의 사진을 든채 베이루트 시립운동장 부근에서 수송트럭을 기다리고있다. 이들은 시리아로 철수할 예정이다. 【베이루트AP電送=聯合】

"PLO, 亡命정부 構想"
파타指導者하산 撤收계기로 平和的해결 희망

【런던25日SPA=聯合】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중앙위원이며 파타게릴라그룹 지도자인 할레드·알·하산은 25일 PLO가 베이루트 철수이후 망명정부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밝히고 PLO사령부가 베이루트에서 철수한것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하산은『영국과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크게 도움이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베이루트철수로『팔레스타인독립국가의 승인을 얻게된다면 전쟁이나 폭력에의지할 필요가없게될것이나 그렇지 않을경우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했다.

美海兵대 任務개시 8百명 레바논上陸

【베이루트25日AP·UPI=聯合】레바논에 상륙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인 美해병대 부대 8백명이 25일새벽5시(한국시간 상오11시)베이루트에 상륙, 항구지역에 배치된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대원들의 해상철수제5진의 출항을 감시함으로써 첫임무를 수행했다.

시리아行 팔戰士들 陸路포기 海上철수

한편 시리아로 가는 팔레스타인戰士 5백50명은 25일 베이루트~다마스커스간 고속도로를 통한 당초의 陸路철수계획을 갑자기 바꾸어 美평화유지군의 보호아래있는 베이루트港을 통해 무사히 레바논을 떠났다.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철수할 예정이던 이날 새벽까지 육로철수로인 고속도로에서 6㎞를 후퇴하지 않아 우익 기독교민병대가 철수하는 팔레스타인 전사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것을 우려한 나머지 육로철수계획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즈끼再選을 지지 田中派 11月선거때

【東京26日=聯合】자민당내최대파벌인 다나까(田中)파는 오는11월 黨총재선거에서 현 스즈끼수상의 재선을지지할 방침임을 25일 공식표명했다.

다나까파 간부인 다께시따·노보루(竹下登) 간사장대리는 이날 가가와(香川)縣 후꾸네에서 개최된 田中派연수회 인사말을통해『앞으로도 黨체제확립을위해 현정권을 지지하지않을수 없다』고 스즈끼지지방침을 명백히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말레이지아를 방문중인 후꾸다前수상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위해 中道정당도 포함한 거국내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新政權구상을 시사한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나까파의 스즈끼재선지지는 기정사실로 돼왔었으나 공식석상에서 공인하기는 처음이며 총재선거를 두달앞두고 自民黨내 파벌활동이 한층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反게마옐運動 격화
레바논, 시리아系·回敎주민

【베이루트25日AP=聯合】레바논의 親이스라엘系 기독교 팔랑헤黨민병대사령관 바시르·게마옐이 2일전 대통령에 당선된것에 항의하는 反게마옐움직임이 북부지역의 親시리아系 기독교주민과 회교주민들을 중심으로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베이루트의 정치업저버들은 北部지역에서 정치폭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솔레이만·프란지에前대통령과 라시드·카라미前수상등 2명의 北部출신지도자들이 게마옐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한데 뒤이은 사태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바논의언론들도 25일 1면기사를 통해 마론派기독교지도자인 프란지에 前대통령의 反게마옐선언을 크게 보도했는데 프란지에 전대통령은 이 경고에서 게마옐이 취임하는 오는 9월23일이후 발생하는 어떤상황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했다.

印언론 罷業결정 9월3일 1일간

【뉴델리25日UPI=聯合】인도의 주요신문과 통신은 언론인이 정확치못한 기사를 쓸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부 비하르州의「언론법안」에 항의하기위해 오는9월3일 하룻동안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이곳 언론인조직행동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9월3일상오8시부터 24시간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히고 비하르州와 기타 州정부에 대해 언론을 위협하고 사실보도를 막으려는 노력은 저항에 부딪칠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裁可만을 남겨두고있는 비하르州의 소위「反언론법안」은 州정부관리들로 하여금 언론인이나 발행인이 공갈을 목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영장없이 체포, 최고 징역5년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灣 비상사태對備 美, 오만서軍事훈련

【워싱턴25日AP=聯合】미국은 페르시아灣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할경우 美軍이 이에 신속히 대처할것인지 이지역산유국들을 안심시키기위해 오만과 그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紙가 24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소식통들을 인용, 이 군사훈련이 이란에 대해 親美아랍국들을 무력이나 전복음모로 위협할경우 미국이 이에 강경하게 대처할것임을 경고하는 의미를 갖게될것이라고 말했다.

美국방성의 한관리는 레이건행정부가 특히 서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또 동쪽으로는 이란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우디를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波20萬 市街행진
聖母초상화 도착 6百周기념

【바르샤바25日AP·聯合=聯合】폴란드인들이 자유노조를 탄생시킨 그다니스크협정 2주년을맞아 오는31일 대대적인 對정부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聖地인 쳉스토호바市에서는 성모마리아 초상화의 도착 6백주년 기념일 전야인 25일 약20만명의 시민들이 기도를하면서 시가지를 행진했다.

당초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던 교황 요한·바오로2세를 대신해서 스테판·바링라주교가 주도한 이날행진은 지난1382년 흑색성모마리아초상화가 가톨릭修士들에 의해 폴란드에 들여온것을 기념하기 위한것으로 작년12월13일 계엄령이선포된이래 최대규모의 군중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쳉스토호바市의 성직자들은 이날 시민들은 쳉스토호바市성당으로부터 성모마리아 초상화가 보존되어있는 라스나·고라 수도원에 이르는 3㎞의 거리를 행진했다고 전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PLO撤收이후 美의 中東정책은
長期的 평화유지가 관심의 촛점
캠프·데이비드協商 토대로 팔自治權 해결 예상
國務·國防장관 주축 方案마련중

【워싱턴26日=李文熙특파원】2개월여의 전투끝에 이루어진 PLO의 레바논철수는 각자의 손익계산은 뒤로 하고라도 우선 유혈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이사태의 모든 당사국들에 다행한 일임엔 틀림없는것 같다. 특히 끈질긴 중재노력을 펴왔던 미국에는 다행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것 같다.

그것은 첫째 이 상황에 이르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했고 결국은 유혈의 종식에 이르게 했다는 점, 둘째 이런 중재역할로 PLO는 물론 아랍, 이스라엘등 中東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할것이란는 관측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금 미국의 관심은 PLO의 철수가 끝난 후 중동지역에 영구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슐츠國務, 와인버거國防등이 TV회견에서 모두 미국이 캠프데이비드정신에 입각한 팔레스타인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중에있다고 밝힘으로써 그방안의 윤곽과 그것이 과연 PLO, 더 나아가 장기적인 중동평화를 유지할것인가에 커다란 촛점이 모아지고있다.

그동안 PLO에는 그많은 인명의 손실 끝에 8개국으로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또다른 유랑의 고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팔레스타인에도 살 터전을 주어야 하며 자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점에서 도덕적·정치적 승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것같다.

공격한측인 이스라엘은 流血로 인한 세계적인 비난은 받았지만 오랜골칫거리인 PLO를 8개국분산에 이르기까지 한것은 군사적인 분쇄를 의미하는것이고 더구나이번철수방안을 비롯 앞으로의 팔레스타인 문제해결 방안도 이스라엘의 기본주장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이라는 기대속에 있는것 같다.

또한 PLO와 이스라엘의 싸움터가 되면서 베이루트의 물질적인피해도 그렇지만국가의 주권이라는 면에서도 만신창이가된 레바논은 이번 철수에서는 피해자가아닌 감시역을 하게되었다.

물론 미국등 다국적평화군의 지원을 받는 현실이지만 감시역이란 주권의회복을 의미하게된다는측면에선누구보다도 다행스럽게여기고있다.

레바논의 주권강화가 PLO는 물론 시리아 이스라엘등 외국군의 철수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바시르·게마엘 신임대통령의 선출을 중앙정부강화의 시발로 보고있는것같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한가. 이지역에대한 근래에없던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이 앞으로의 이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로 나타날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이 이번 철수에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많다.

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제 모든 당사국들에 똑같이 철수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평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의미는 더욱 강한것같다.

그것은 PLO의 철수중에 美해병대의 피격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서부터 멀리는 철수후의 평화방안에이르기까지가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분명 이번에 미국은 하비브특사를통한 협상중재로 외교적인 득을봤다. 어느 의미에선 소련의 PLO, 시리아에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미국의 중재노력은 더욱 각광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 아랍국가들은 미국이 기왕에 보여줬던 솜씨를 항구적인 이지역 평화를 위해 다시한번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한구석에는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이 미국과의 공모, 적어도 묵인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깊은 의심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번의 외교적 승세를 여하히 아랍, 이스라엘이 다 만족할수 있는 평화방안에까지 몰아 나갈수있는가에 앞으로 이지역에서의 지위가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레이건행정부의 對중동정책은 어느의미에선 PLO등의 문제를 그때 그때 넘겨나가면서 보다 이지역에대한 소련의 영향력이나 위협에 더 촛점을 두어왔다고 해도 크게틀리는 얘기는아니었다. 그러나 이번레바논사태와 이에대한 중재과정에서 미국에는 더 확고한 자세가 요구됐고 이것이 본질적인 중동문제에의 몰입으로 자세를 바꾸게했던지도 모른다.

지난20일 레이건대통령은 미해병대의 레바논파병을 발표하면서 이지역에대한 앞으로의 기본정책같은것을 밝혔다. 그것은 레바논문제의해결은 레바논의 주권, 영토보존의 완전회복이 반드시포함해야하며 팔레스타인문제 더 나아가 중동문제의 해결은결국 팔레스타인의 자치권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있다.

잇딸아 최근 TV와 각각 회견을한 슐츠와 와인버거장관도 캠프 데이비드방식이 미국의 새로운 평화방안의 골격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슐츠장관은 캠프 데이비드협의란 요르단西岸과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한 67년중동전쟁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242의 제한인 그일보인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팔레스타인의 존엄성과 삶을영위할수있는 상황의 설정이 새로운 방안의 매우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의 기본요구는 들어주는방향이다. 다만 이 방향에서의 문제는 팔레스타인의 국가건설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측이 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달려있다. 미국은 지금 사실상 미국주관의 PLO철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것이 지금 레바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들을 회의적으로보고있는 다른 아랍지도자들에게 미국이 또다시 중동평화를 위해 기능을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되길 희망하고 있다.

메아리
새학년

金昌悅 <編輯委員>

요 며칠, 집안이 꽤나 어수선하다. 어쩌다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 다니는애들이 있다 보니, 새학기 개학 날짜가 각각 다르다. 일들이 저마다 방학 과제물을 챙기느라 부산을 떤다. 숙제를 안낸다고 하지만, 밀린 과제가 꽤 된다.

게다가, 한차례 부산을 떨고, 며칠전 개학한 맏이는, 개학하자 한 차례 시험을 치르고 축 쳐졌다. 둘째는 며칠 뒤 시험이 시작된다고 머리를 싸매고있다. 왜 학기초에 시험을보이는지모르지만, 개학기 북새통 며칠사이, 바닷가를 다녀온뒤 팔팔하던 티를 잃어버린것같다.

해마다의 일이지만, 이 때쯤의 부산함이 시작되면, 지금의 學期制가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여름방학의 뜻을 반쯤이나 잡아 먹는「9월 새學期」보다는「3월 새學年」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지금같은「3월 새學年」은 봄과 함께 모든것이 시작된다는 季節感에 알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본과 우리에게만 있는 學事曆이다. 외국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으니, 말하자면 日帝교육의 잔재다.

그 일본도 당초 明治初年에는 9월이 學年初였다고 어디선가 읽었다. 그러던 것이, 4월 會計年度와 징병검사철에 맞추어「4월 새學年」으로 바뀌었고, 敗戰뒤 억지로 미국식 學制를 받아 들이면서도,「4월 새學年」만은 고집스레 지켰다는 내력이 있다는것이다. 그대신 일본은 3學期制라, 2~3월의 봄학기와 봄 방학이 있는것이 우리와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강요당했으니, 별다른 내력이 없다. 그저 美軍政때 學制개혁과 함께 學年初가 9월로 밀렸다가, 정부수립과 함께 3월로환원됐으며, 이 뒤는 다시 9월(51년), 4월(53년), 3월(61년)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른다. 이 틈에서 필자 또래의 세대는 3·4·9월의 새학년뿐 아니라, 學年初변경의 過渡期에는6월 새學年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런 경위를 돌이켜, 봄새學年과 가을 새學年의 장·단점이 두루 검토됐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길래 미국식 2學期制이면서 새學年만 3월로 당겨, 학기중간에 겨울방학이 들고, 개학뒤 2월 한달을 허송하는 學制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1월강추위속에 大入 體力章시험을 치르는 어거지가 생겼고, 그 것이 안스러워「4월새學年」으로 하자니, 3월 한달의 수업마저 흐지부지하는 흠이 돋보여, 目下目否 여론만 들끓던 것이 지난 74년이다.

흑한期 大入의 문제는, 이제 本考査 폐지로 해결이 났으나,「9월 새學年」을 펼듯만한 근거는 그것 말고도,또 일본것이 싫다는 심정적인것 말고도 여럿이 있다.

첫째, 앞으로 법정 수업일수는 차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경우 겨울방학 보다는 여름방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겨울과 여름의 季節特性을 생각하면, 연료비 절약을 명목으로 한 지금의 겨울방학은 너무 길고 구차하다. 학기와 학기사이의 연계를 생각하고,방학을 더욱 방학답게 하기 위해서는, 한 學年을 마치고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것이 교육적이다.

둘째, 겨울 방학뒤 2월초에 새학기를 시작함으로써 학기중간의 방학, 2월 한달 허송이 없어진다. 이 경우 봄·여름 학기 사이의 가정수업기간에 휴가를 주어도 좋을것이다.

세째, 진학시험과 졸업식이 6~7월에 있게 되므로 추위가 문제될것 없고, 졸업반 학생의 敎育空白이 없어진다.

네째, 9월은 국민학교 어린이가 취학하기에 알맞은 날씨가 된다. 한때 거론되던 5세취학등의 學制개편과 연동해 學年初를 조정하면서, 취학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過渡期의 잇점도 있다.

꼽자면 더 거론할 것이 있으나, 公正을위해「9월새學年」의 단점도 적어두는 것이 좋겠다. 그중의 하나가 9~12월 첫학기가 너무 짧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公正을 위해서「3월새學年」의 장점을 적자면, 그중 가장 實利的인것 한가지를 빠뜨릴 수가 없다. 그것은 외국에 유학가는 경우,국내에서 學業을 마치고,유학가는 나라의 새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반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3월」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코끼리타고 結婚25주년 自祝　美애리조나州 피닉스市에사는 앨런·머콜리씨夫婦가 22일 결혼25주년을 맞아 아들과함께 매사추세츠州의 나한트市 컨트리·클럽에서 아시아產 코끼리를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있다. 【나한트(美매사추세츠州)23日AP航空便=聯合】

印政界에 姑婦대결
★간디둘째며느리野黨창당

인디라·간디인도수상의둘째며느리인 마네카·간디여사(26)는 25일 집권국민회의당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새로운 야당을 창당할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인도정국에 고부간대결의 시대가 올것같다.

간디수상의 차남인 故산자이씨의 미망인 마네카여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국민회의당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0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할것이라고 밝혔다.

마네카여사는 현재 2명의 의원을 포함한 국민회의당원여러명이 자신과함께 일하고있으며 지난3주간 9만5천명이 신당에 참여하기로서명했다고 전했다. 【뉴델리=AP】

海外토픽

精子은행 아기2號
★LA서 產母는 心理學박사

이른바『천재 정자은행』이 제공한 정액을받아 수정된 두번째 아기가 로스앤젤레스의 한병원에서 탄생하여 이 정자은행은 이제 두아이의 아버지가 된셈이다.

그리스어로『선물』의 뜻인 도론이란 이름이 붙은 사내아기의 어머니는 40세독신 심리학자인 애프턴·블레이크박사이며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것.

『노벨정자은행』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자은행은 당초 노벨상수상자들의 정액만 기증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른 우수한 과학자들의 정액도 기증받고있다고 하는데 이번 아기의 탄생은 한 컴퓨터 과학자의 정액에 의한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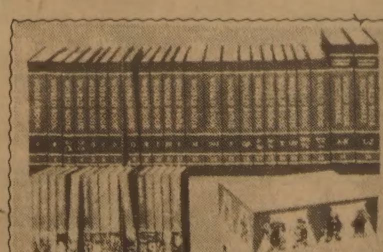
세계地名을 표준화
★제네바서3週간유엔會議

지명표준화에 관한 제4차 유엔총회가 24일 약 2백명의 지도제작자와 언어학자들이 참석한가운데 개막돼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지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3주동안 회의를 갖는다.

유엔관리들은 이번 총회에서 러시아 알파베트를 로마문자로 표기하는 국제표기체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제네바=聯合】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8월 한달간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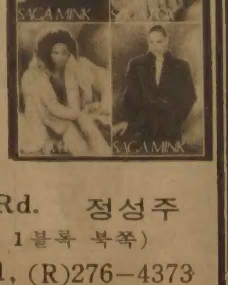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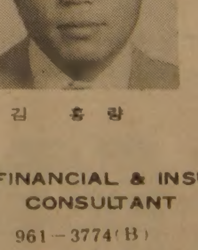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市道에 科學高校 세운다

내년부터 初中高 科學기술교육 강화

基礎강화·英才교육·實驗室 지원
制度개편·敎具公社 설립

自然시간 2배로·大入試에 많이 反映

과학기술교육이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6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우리나라 과학교육제도를 전면 재조정하는것을 골자로한 「과학기술교육진흥안」을 마련, 오는83학년도부터 실시키로했다。

진흥안의 주요 골자는▲과학교육우선을 위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편▲과학과목의 대학입시 반영을 확대▲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우열반 편성운영과 시·도별 과학고등학교 설립▲정부주도의 과학 교구 공사신설▲우수과학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진흥안은 과학 기초교육을 중시, 과학교육에대한 부자순위를 초·중·고순으로하고 국어·산수등 9개과목중 비중이 낮게배정된 「자연」(실과 포함)을 현재의 주 2~4시간에서 4~6시간으로 2배 정도 늘리고, 교과서위주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 국민학교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자연현상에 흥미를 갖도록 실험실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39.2%(2천6백64개실)에 지나지않는 실험실을 정부지원으로 대폭 늘리는한편 학교와 학생들이 양질의 실험기재와 교구를 싼값에 구입할수있도록 정부주도형의 「과학교구공사」를 설립키로했다。

또 국민학교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기위해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대학및 사범계열대학의 입학시험에 과학과목 배점을 크게 강화하고 검정고시합격자와 재임용교사들에게는 과학실험에 관한 시험을 따로 치르도록했다。

문교부는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과목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현재 대학입학력고사에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등 4개과목에서 1개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오는 87학년부터 4과목전부를 포함시킨다는것。

지금까지는 대입학력고사에서 4개 과목중 1개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학생들이 비교적 점수따기 쉬운 한과목만을 공부해 효과적인 과학교육을 기대할수 없었다。

이와함께 문교부는 대학의 자연과학분야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제도도 마련할 방침인데 지금까지는 자연과학계통 학생들간에 인기가없어 82학년도의 경우 대입학력고사 3백점이상 고득점자들 가운데 99%정도가 인문이나 사회과학부문에 지원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실험·실습교육이 대학입학 연계되도록 평소학생들의 실험실적을 평가,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대입학력고사에도 실험능력을 테스트하기로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에 뛰어난 학생들을 일찍 발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위해 과학과목을 중심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며 전국 시·도별로 특수영재교육인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토록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과학교육진흥방안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과학교육 관계자들은 『종래와 같은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할수 없을뿐더러 국제간의 산업경쟁에서도 뒤떨어질것이 확실해 종합적인 교육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말했다。【李鍾九기자】

◇脫落파문속 묵묵히 신체장애자의 법관임용 탈락으로 장애자의 현실참여 문제가 크게 부각된 26일상오 서울龍山區普光洞에있는 正修직업훈련원에서 신체 장애자들이 모여 기능 경기대회를 벌였다。정상인에 뒤지지않는 솜씨로 TV를 수리하고있는 장애자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救濟 전혀 고려안해

大法院 法官任用탈락 障碍者 4人

대법원 당국자는 26일 지체부자유자의 법관임용탈락 사실을 둘러싸고 사회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데대해 『다소의 부작용은 예상했던 것으로써 탈락된 사람들에대한 구제나 재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이 당국자는 또 『지난번 신규임용된 65명은 앞으로의 법관사직등으로 인한 결원까지를 예상해서 법관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원보충형식의 구제방법도 거론된바 없다』고 밝혔다。

"法官임용 脫落철회로 障碍者선도·保護해야"

한국 人權옹호聯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李浩)은 26일 신체장애자 4명이 지체장애를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된데 대해 『이번조치를 철회하고 탈락된 사람들을 인권옹호의 기수로서 발탁, 임용하여 수많은 장애자들을 선도, 보호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줄것』을 俞泰興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장애자 法官탈락에 保社部서 유감표명

安濟秀보사부대변인은 26일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법관임용탈락에 대해 『이들의 임용탈락이 신체상의 이유때문이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논평했다。

安대변인은 이어 『보사부는 법원행정당국에대해 지체부자유자들의 임용탈락 진상을 알아본후 이에 대한 적절한 건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행성 出血熱센터 WHO서 高大지정

高麗大부설 바이러스병연구소(소장 李鎬汪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유행성출혈열연구센터로 지정돼 26일 하오2시 高麗大회의실에서 金俊燁총장과 WHO西太平洋지역총재 나까지마박사·文太俊대한의학협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연구센터는 앞으로 4년간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인 「漢灘바이러스」의 특성규명과 검사방법표준화및 기본시약생산등과 함께 각국의 연구소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학기에 6백59명 高大 학사警告조치

高麗大는 26일 1학기성적 불량학생 6백59명을 학사경고처분했다。학년별로는 1학년이 3백41명으로 가장많고, 2학년 1백71명, 3학년 1백2명, 4학년 45명이며 이중 졸업정원제적용을 받는 학생은 4백72명이다。

周載雨 부장判事등 중견法官 4명辭表

서울 형사지법 周載雨부장판사(45·고시13회) 鄭在憲부장판사(45·고시13회)와 大田지법의 吳福東부장판사(44·고시16회) 서울북부지원의 崔鍾泰판사(43·사시13회)등 중견법관 4명이 26일 사표를 냈다。

이들중 周부장판사는 水原지법으로, 鄭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각각 9월1일자로 전보발령을 받았었다。

莞島郡所安面서 즐문土器窯발견

【光州】우리나라에서는 東江과 漢江주변에서만 출토됐던 즐문토기를 굽던 요(가마)가 全南莞島郡所安面 榧子里동쪽 1백m지점인 소안종합고등학교 부지에서 반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요는 지난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莞島郡蘆花面 南古島등 1개섬에 대한 자연실태 종합조사에나선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全京秀교수팀(서울대)에 의해 밝혀졌다。

全京秀교수팀에 따르면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즐문토기를 구운 것으로 보이는 이요는 가로50m、세로 20m로 밝혀졌고 이곳에서는 다남은 즐문토기 조각과 불탄 토기를 만든 원료 흙으로 보이는 흙덩어리도 뭉쳐진채로 발견됐다는 것이다。【鄭】

無罪宣告 부쩍 늘었다

"自白、物證있어야" 작년의 倍

大邱地法1審

【大邱】불응없는 자백의 경우 임의성은 인정돼나 신빙성은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까지 낳고있는 가운데 올들어 大邱지법관내에서도 무죄 선고가 부쩍 늘고있다。

大邱지법 1심법원이 올들어 7월말까지 선고한 무죄선고는 형사사건 6천8백74건 가운데 83건(1.2%)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형사사건 5천9백88건중 무죄선고 32건(0.53%)보다 2.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죄선고건수는 전국 1심법원에서 내린 평균 무죄선고 0.68%(총선고 건수 8만4천33건, 무죄선고 5백68건)보다 1.7배 높은 것이다。

또 大邱지법은 불구속사건 1천4백39건중 4.72%인 68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전국평균 0.68%보다 6.9배나 높았으며 구속사건 5천4백35건중에는 0.27%인 15건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밖에 大邱지법은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사건중 1백66건과 불구속기소인 32건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1심법원인 大邱지법에서 이같이 무죄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체선고건수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가 미진한채 피의자를 기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鄭】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金胤泰 신부

◇金用泰 신부

쌍동이 神父 첫 誕生

어제 明洞성당서 敍品 "苦痛받는者 편에…"

우리나라 천주교사상 최초의 쌍동이신부(神父)가 탄생됐다。26일 하오2시 서울 明洞성당에서 거행된 서품식에서 5명의 신부와 3명의 부제(副祭)등 모두 8명이 서품을 받았는데 이중 金胤泰、用泰(28) 쌍동이 형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형제 신부는 많았으나 쌍동이 신부는 처음이다。

국민학교 때부터 같은반에서 붙어지낸 이들 쌍동이 형제는 독실한 신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聖神중·고교와 신학교인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거쳐 신부로서의 같은길을 걷게됐는데 이날 서품식을 끝낸뒤 『주님의 목자로서 형제의 뜻을모아 고통 받는 사람들의 벗이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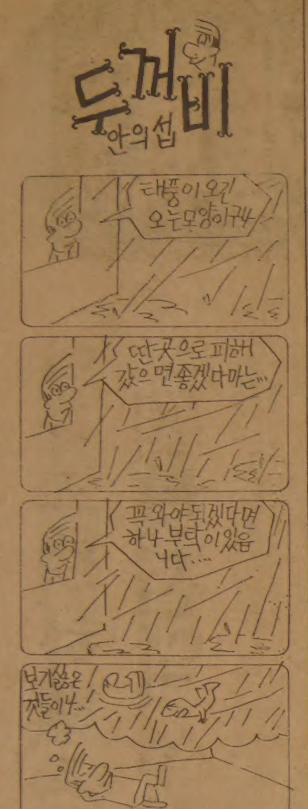
張여인 謝禮金관련 警察7명 訴請기각

李哲熙·張玲子부부집 절도범을 검거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원면직된 睦경사등 7명의 전직 경찰관이 정부에 제출한 소청이 기각됐다。

睦경사등은 지난6월 사례금수수와 관련, 의원면직된뒤 의원면직조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에 의한것이었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청을 총무처에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없으며 그 처리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소청을 기각했다。

昌寧에도 擬似뇌염

【大邱】경남 昌寧에서도 의사뇌염환자가 발생했다。26일 慶北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한 朴모군(9·慶南昌寧郡大合面)이 검진결과 의사뇌염으로 밝혀져 병원측이 朴군의 혈청을 뽑아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대견스런 女大生에 市警서表彰·금일봉

李海龍서울시경국장은 26일 재미동포가 버스안에 놓고 내린 미화 8천달러와 여권등이 든 가방을 되돌려준 祥明女師大 체육과3年 金美子양(22·한국일보25일자 11면)에게 표창장과 금일봉을 주고 선행을 치하했다【사진】。

李국장은 이자리에서 『젊은이들의 선행은 밝은사회를 이룩해 나가는 원동력』이라며 金양을 격려했다。

濟州해상 交通두절

東·南海港기능마비

【地方】제13호태풍 엘리스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남해및 동해남부해상에는 26일하오 4~6m의 높은 파도와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濟州를 비롯한 부산·麗水·木浦·東草등 각 항·포구의 연안여객선과 어선들이 긴급대피하고 일부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침몰하는등 피해를 내고 있다。

濟州지방에는 1천5백여척의 각종선박이 항·포구로 대피중인 가운데 이날상오10시부터 육지와연결되는 모든 해상교통이 끊겼으며 KAL만이 정상운항되고 있다。

釜山지방에도 이날 상오11시현재 釜山―濟州간카페리호를 비롯, 忠武·麗水등 남해안을운항하는 모든 연안여객선이 연3일째 발이묶여있으며 부산·南港과 多大浦항등에는 연근해어선 5백여척이 긴급피항, 항·포구를 메우고있다。

지난번 태풍 세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경남도는 그동안 응급복구한 시설물이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날 1천2백여개의 수방단에 대해 시설점검과 안전대책에 만전을기하도록 각시군에 지시했다。

또 麗水지방 해운항만청은 연안여객선 10척의 출항을 통제하고 麗水구항과 국동항에 정박한 5백여척의 각종어선에 대해 긴급피항을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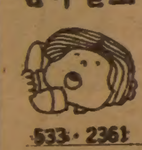
한편 25일 하오6시30분께 전남新安郡 대흑산도동쪽 5마일 해상에서는 오징어잡이를 하던 東草항소속 행려호(71톤·선장 金일현)가 심한 파도로 암초에걸려 좌초, 침몰했으나 어부31명은 모두 구조됐다。【鄭】

물놀이 남녀학생 5명溺死 慘變

【大邱】26일 하오1시께 慶北漆谷郡石積面浦南2동앞 洛東江에서 물놀이하던 倭館제일교회학생회 회원인 임석근(20·大邱大1년) 박배근(17·倭館순심고1년) 김금주(14·순심여중2년) 배선주(14·왜관여중2년) 정수지(14·왜관여중2년)등 5명이 수심2m의 강물에빠져 익사했다。

제일교회 학생회 회원들과 함께 낙동강변에 야유회를간 이들은 옷을입은채 강가에서 물장난을 치던중 때마침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붙잡으려고 헤엄쳐들어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서로 부둥켜 안은채 익사했다。

경찰은 인근 마을주민등30여명을 동원, 시체인양작업을 펴고있다。【鄭】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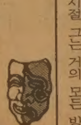
병아리 律士

軍法務官으로 入隊하는 金龍德씨

司法研修院수석… 法曹界 걸음마

병아리律士 金龍德씨(24·사진)가 군법무관에 입대한다。사법고시 준비과정에서부터 「형극의 길」로 통하는 律士의 인생에서 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초년병。그러나 만만치는 않다。

그는 최근 거행된 제12기 사법연수원수료식에서 수석을 차지、영예의 대법원장상을 받음으로써 당당한 스타트를 보였다。서울大法大차석졸업、리라국교·東北中·경기고의 수석졸업이 이 「당당함」을 뒷받침 해준다。



학창시절 그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주위에서 전한다。대학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무얼 전공해야할지를 모르다가 아버지의 권유에따라 법학을 전공했고, 자신도 이에 만족했다。그러나 3학년때 사법시험에 응시, 처음으로 낙방의 쓴맛을 보았다。4학년때 다시 21회사법고시에 응시 합격했고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동안 평균88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황자의 벽을 뛰어넘어 원만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제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읍니다』 IQ 1백48의 수재인 그는 쉬엄쉬엄 공부했다는 것이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술에 약하면서도 친구들과 술좌석에서 어울리면 호연지기를 익히려했고 남과 어울릴수 있는 테니스·바둑실력과 타이프·서예등의 솜씨가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검약한 가정분위기로 책을비롯 옷·구두·가방까지 대물림을해 대범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성품을 갖도록 배려했다는 것이 아버지 金明鎬씨(60·중앙통상대표)와 어머니 金寧熙씨(55)의 귀띔이다。

『선배들의말에서 요즘 판결에 대한 불신과 재판과정에서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불신과 압력을 견딜수 있는 자질과 소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병아리 律士』치고는 다부진 답변이다。『한걸음 한걸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배워나가렵니다。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면 「法曹人」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한인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체부자유자의 법관임용탈락사건으로 사법부가 「구설수」를 탄날 그를 만나보았다。그가 「학교수석」이 곧 「인생의수석」은 아니라는것을、고시1등이 반드시 판사1등은 아닌것이 「세상의生理」라는걸 알고 있을까。【方敢俊기자】

토론토시

쓰레기수거일 변경

●레이버 데이
●1982년 9월 6일(월)

1982년 9월 6일(월)에는 쓰레기수거가 없읍니다.
정기월요일(9월 6일)대신 화요일 9월 7일 수거됩니다.
정기화요일(9월 7일)대신 수요일(9월 8일) 수거합니다.
9월 8일(수요일)에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건은 수거치 않습니다.
9월15일에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건을 수거하니 모아놓으세요.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8군데의 병과 쇠붙이를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6월동안 414톤의 신문지와 28톤의 유리조각 그리고 5톤의 깡통이 수집됐었읍니다. 더이상의 안내는 367-7742로 전화하십시오.

R. M. Bremner, P. Eng., F. I. C. E
Commissioner of Public Works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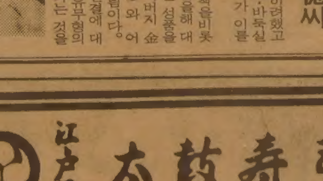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江戶家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한국男C 優勝후보 美A 꺾어 波瀾

신예 金正默·安宰亨 맹활약 3회전進出 3-1

세계랭킹 보간·시밀러 死色

朴利熙의 男A도 웨일즈完破

여자B는 그리스에 3-0勝

서울國際탁구

대회 이틀째를 맞은 제2회 서울 오픈 국제탁구대회 남자단체전에서 신예 安宰亨·金正默으로 구성된 한국남자 C팀이 강력한우승후보의 하나로 지목되던 美國A팀을 3-1로 격파, 큰파란을 일으켰다。26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2회전경기서 한국남자 C팀의金正默(청주고3년)과 安宰亨(부산광성고2년)은 세계랭킹32위 에릭·보간과 47위 댄·시밀러가 버틴 美國A팀에게 복식 1게임만을 잃고 3-1로낙승, 3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安宰亨은 긴리치를이용,매서운 스매싱을 퍼부어 2차단식에서 美國챔피언 데니·시밀러를, 3차단식에서 에릭·보간을 각각 2-0으로 제압,승리를 결정지었다。

한국남자A팀도 西獨에서 돌아온 세계랭킹14위 朴利熙의 화려한 플레이와 金浣·金琦澤의 활약으로 웨일즈A팀을 3-0으로 완파하고 3회전에 올랐다。

그러나 尹吉重、盧潤寬으로 구성된 한국B팀은 뜻밖에도 잉글랜드에 3-0으로 완패、탈락했다。

한편 한국여자 B팀은 1회대회 단식챔피언인 黃男淑과 申得花의활약으로 그리스를 3-0 스트레이트로 제압하고 3회전에 진출했다。

지난대회 남자단체전 우승팀인 스웨덴 A팀은 이날 2회전에서 세계랭킹4위에 올라있는 아펠그렌과 22위 발트너가 일방적인 우세를보이며 인도네시아B팀을 3-0으로 완파했다。

이 대회에 처음참가、남자단체전 타이틀을 노리고있는 日本A팀은 이시따니와 사이또가 발군의 스피드를과시하며 아랍에미리트 B팀을 3-0으로 제압, 3회전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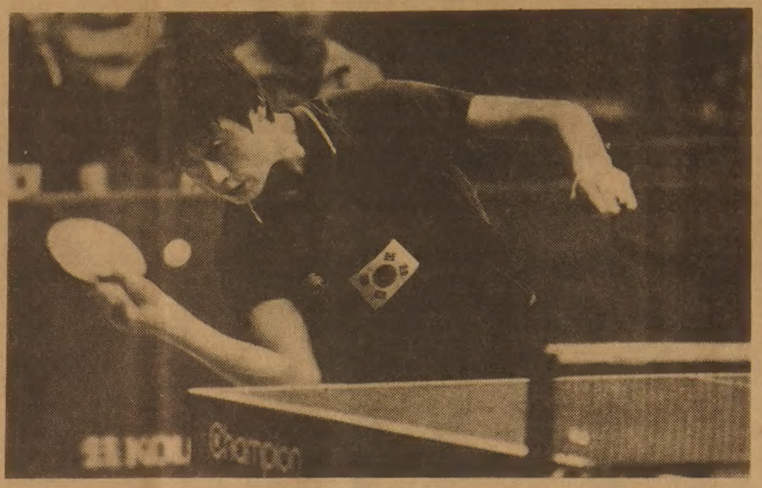
◇제2일전적

▲남자단체2회전

한국C	3		1	미국A
金正默	2	21-14 21-17	0	보간
安宰亨	2	21-16 23-21	0	시밀러
金正默·安宰亨	1	21-17 15-21 18-21	2	보간·시밀러
安宰亨	2	21-16 21-16	0	보간
한국A	3		0	웨일즈A
朴利熙	2	21-13 21-11	0	마크
金浣	2	21-13 21-14	0	앨런
金浣·金琦澤	2	21-15 21-7	0	마크·앨런
잉글랜드	3		0	한국B
존슨	2	17-21 21-9 21-17	1	尹吉重
샌들리	2	21-13 21-18	0	盧潤寬
존슨·샌들리	2	21-17 19-21 21-18	1	尹吉重·盧潤寬
스웨덴A	3		0	인도네시아B
덴마크	3		2	타일랜드A
인도A	3		0	싱가포르B
스코틀랜드	3		0	사우디아라비아A
캐나다	3		2	웨일즈B

▲여자단체2회전

일본A	3		0	아랍에미리트
스웨덴B	3		0	호주
홍콩	3		0	태국B
한국B	3		0	그리스
黃男淑	2	21-11 21-11	0	카이티
申得花	2	21-3 21-11	0	아안드리니
黃男淑·申得花	2	21-6 21-14	0	카이티·아안드리니
오스트리아	3		2	미국A
잉글랜드		기권		일본B
캐나다	3		0	인도네시아B
덴마크		기권		스위스
스웨덴	3		1	인도B



◇분전하는 金正默 남자단체전서 한국C팀의 金正默이 美國의강호 에릭·보간과의 경기서 분전하고있다。

◇절망은 없다 오른팔을 잃어 왼손으로 탁구를하는 아랍 에미리트의 파에드·에이사군。

서울오픈 탁구落穗

在美동포 4명 故鄉그리워 美대표로

몸은 멀리 美國에 있어도 고국과탁구에대한 향수에는 변함이없다。崔勝義(38)崔경욱(17)羅珍(28)崔京美(25)。이들은 고국에서 벌어지는 탁구잔치에 참가하려고 美國대표 B팀이라는명칭을 달고달려왔다。

코치겸 선수인 崔勝義씨는 한국 탁구계에서도 이름이쟁쟁하던 전국가대표 선수。64년 서울에서열린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그때만해도 강호로 군림했던 自由中國에 5-4로 역전승을 거두어 日本에이어 한국을 2위로 이끌어 올린 주역이었다。

65년에는 金忠勇(현국가대표코치)·朴重吉·兪鎭奎씨(동아건설감독)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유고의 류블리아나에서 벌어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출전、날카로운속공과드라이브로맹활약했었다。

崔경욱군은 3년전 大光中선수로 활약하다 미국에 이민、버밍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美國 여자B팀 선수인 羅珍씨는 서울여상과 신탁은행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崔京美는 산업은행서 활약하다 5개월전 美國으로 건너갔다。

『너무 오랫동안 탁구대를 떠났는데다 나이도들어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기는 어렵다。그러나 아직 美國사람들의수준이 낮아 웬만한 대회서는 옛솜씨로 좋은성적을 거두어 美國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한다』崔勝義씨는 이기려고 하는탁구는아니라고말한다。

이들은 탁구를 통해 애향심과 친선을 도모하며 한국의 전지훈련지도서 88년 올림픽에 대비하는 한국 탁구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崔勝義씨는 최근 우리 동포들의 자금으로 세워진 글로발세이빙스 은행에 팀을만들어 한국의 유망선수들에게 美國에서 훈련을 쌓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方錫峋기자】

國家代表선수 유니폼 통일키로

같은 모양·색깔… 太極마크대신 "한국"상징標章

앞으로 각종목대표선수들은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유니폼을입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게된다。

26일 대한 체육회는 앞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의 유니폼을 통일시키고 지금까지 복장에 부착했던 태극마크대신 한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표장을 달도록 결정, 복장이나 표장만보아도 한국선수임을 알수 있도록 유니폼을 개선키로했다。

이에따라 체육회는 오는28일부터 9월15일까지 한국선수단 단복및 트레이닝복、선수단복장에 부착하는 표장을 공모한다。

오는11월 印度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은 새유니폼을 입고 출국한다。

당선작상금은 단복및 표장의경우 1백만원、트레이닝복은 50만원이며 가작은 30만원이다。당선작발표는 9월27일。

대한체육회 團服등 公募、아시안게임부터 착용

바둑소식

1名선발은 연기

○…21일끝난제14기名人戰 3차예선에서 盧永夏7단 徐能旭6단이 본선리그에 올랐으나 나머지 1명은 예비군 훈련관계로 梁相國6단對李相徹4단대국의 승자와 鄭昌鉉7단이 겨루어 판가름하게 됐다。

몇달전 신병으로 수술까지했던 鄭昌鉉7단은 아직도 불편한 몸으로 이번 名人戰에 출전, 金東明6단과 高在熙6단을 차례로 물리쳐 지난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14기 名人戰 3차예선 盧永夏·徐能旭기사 본선에

碁聖戰서도 회오리

○…碁聖戰 도전기에서만은 질 것 같던 趙治勳名人이 여기서도 타이틀에 한발짝 앞까지 접근함으로써 또한번 회오리바람을 몰아오고있다。

名人·本因坊·十段·鶴聖 등 4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있는 趙治勳9단은 25일日本新聞바둑聯盟이 주최한 제7기 碁聖戰5번기 제4국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碁聖에게 불계승을 거두어 종합전적 2승2패로 막판승부를 벌이게됐다。이날 東京 日本棋院회관에서 개최된 제4국에서 白을 쥔 趙名人은 2백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남은 시간은 趙名人 1분、大竹碁聖 2시간35분。

이번 碁聖도전전은 처음부터 이변이 속출했다。趙名人은 재작년 名人타이틀을 오오다께9단에게서 뺏어 오오다께에게 강한 기사라는 정평이 있었으나 첫국에서 패했다。

趙名人의팬들은『오오다께보다 더힘든 상대인 고바야시(小林光一)9단의 도전을 받아 本因坊타이틀을 지키는데 정력을 쏟고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그러나 趙9단은 고바야시9단의도전을 물리친 다음에 가진 碁聖戰 제2국에서도 패해 막판에몰리자팬들은『碁聖戰만은 안되는가…』하고 안타까와했다。

때마침 오오다께碁聖은 名人戰도전권까지 쟁취함으로써 趙名人과 두곳에서 결전을 벌이게됐다。고바야시라는 유망주가 맥없이 쓰러져 내심 기분이 좋지않았던 日本바둑계는 이제 오오다께를 성원하기시작했다。

그러나 趙名人은 전열을가다듬어 3·4국에서 연승함으로써 9월1일 회심의1전을 벌이게 됐다。두 기사는 9월7일께부터名人戰도전7번기에 들어갈판이어서 9월 초하룻날 벌이게될 이대국은 碁聖戰의 피날레이자 보다큰 대국인 名人戰의 전초전으로서 日本바둑계의 시선을 모으고있다。

종합전적 2승3패

○…제1회 韓日친선中學生바둑교류전에 참가했던 대표단5명이 14일 귀국했다。

이들은 日本에서 日本중학생 선발팀과 대국하여 劉昌赫군(沖岩中3년)과 蔣成桂군(原州 大成中3년) 등 2명만 이겨、종합전적 2승3패로 패했다。

그러나 공식대국에이어 열린 趙治勳名人과의 지도대국에서는 劉昌赫군이 2점을놓고두어 2집을 이겨 주위를 놀라게했다。【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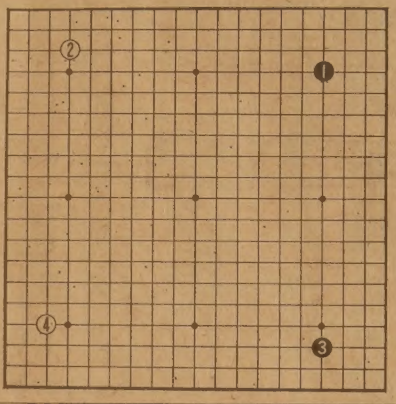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第14期 名人戰 개막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1譜 1~4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제14기名人戰은 마침 棋士들의여름휴가로 인하여 예선전이 지연되었고 따라서 본란도 상당기간 쉬어야해서 팬들의 궁금증을 크게산점 사과드립니다〉

제13기는 名人 曺薰鉉九段이 1로 도전자 徐奉洙7단을 물리침으로써 3차방에 성공、곧이어 王位마저 徐7단에게서 쟁취하여 제2차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솔직하게말해서 지난번 시리즈는 거지반이 曺名人의 역전승、徐7단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낚은 大魚를 홀홀 놓친격으로 여기에서 이른바 운의작용을 심각하게 느끼지않을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가지 曺名人으로서는 뭐니뭐니해도 徐7단의 손재를 몽매에도 잊을수 없는 일이다。徐7단과의 대결에서 흔히 초·중반에 고전에 빠진것은 어쩌면 설계면에서 徐7단에 뒤진 때문일지도 모른다。그야물론 결과만따지면 평집는게매다。그렇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고전을자초하진 않겠고 또 그같은 위험은 棋理에 벗어난다。만약 徐7단이 제3국처럼 초반의우세를 끝까지고수한다면 앞으로 여전승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어쨌거나 7個城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해야할 曺全冠王과 한쪽서부터 이를 공략할 徐7단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하회를 기다리기로하고 이제 제14기名人戰 예선최종결승을 소개한다。우선 黑白간 4귀를 차지했다。【一凡】

不滅의 홈런王 행크·아론 서울에

한국선수 打擊지도 "野球발전 보탬됐으면"

"은퇴는 野球공이 2개로 보일때에 / 슬럼프벗어나는 길은 오직 연습뿐 / 흙한줌 내동댕이쳐 審判불만 풀고"

인터뷰

세기의 홈런왕 행크·아론(48)이 26일 한국에왔다。

미국프로야구 아틀랜타·브레이브스의 부사장인 아론은 이날 새벽6시반 부인 빌리·아론여사와 함께 트랩을 내리면서『나의 방문이 한국 야구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74년4월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루드의 기록(7백14개)을 깨고 7백15호 홈런을 날렸으며 23년간통산 7백55개의 홈런을 기록한 불멸의스타 아론은 7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한뒤 아틀랜타·브레이브즈의 선수관리 담당감독겸 부사장을 맡고있다。

아론은 선수생활중 홈런외에 유일하게 양대 메이저리그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안았으며 지난13일에는 야구선수의꿈인「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아론은 26일 하오1시 徐鐘喆한국프로야구위원회 총재를 방문한데 이어 2시40분부터 약 40분간 新羅호텔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론은 27일에는 판문점을 시찰하며 28일에는 하오3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운동장서 三星라이언즈 선수들의 타격을 지도하고 三星-롯데戰에 앞서 李萬洙(삼성)、金容哲(롯데)과함께 홈런레이스를 갖는다。

또 29일에는 상오11시부터 신세계백화점서 사인회를갖고 慶州 景福宮등을관광한뒤 9월2일離韓한다。

아론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록에는 행운이 많이 뒤따랐다며『선수생활을 오래하다보면 기록은자연히 깨지는것이 아니겠느냐』고 겸손을 보였다。

다음은 행크·아론과의일문일답 내용이다。

—오는 11월 팀을 이끌고 방한경기를 갖는다는데…。

▲메이저리그 타격50걸내에있는아틀랜타·브레이브즈소속 선수3명을포함, 산하 6개클럽서 적당한선수들을 선발、아틀랜타·브레이브즈를 구성해 한국에 오겠다。

—생애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은。

▲홈런기록도그렇지만명예의 전당에 헌정된것이나와 가족의 가장 큰 영예이다。

—23년간 선수생활을 계속할수 있었던 비결은。

▲건강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단지 직업인으로서 충실히 진지하게 임했을뿐이다。행운도 뒤따랐던 것 같다。

—신체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남보다 팔과 손목이 강하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됐다。

—누가 당신의 기록을 깨뜨릴까。

▲마이크·스미드(필라델피아、필리스)가 가장 유망하다。그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다 올해들어 40개의 홈런을 때렸다。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의 기록을 깨뜨릴 것이라고 믿고있다。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은。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꾸준한 연습으로 극복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선수생활중 심판에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심판도 사람인만큼 실수를 할수 있다。

언제나 심판도 최선을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불만을 참지 못하면 흙이라도 한줌집어 내동댕이 치는게 고작이었다。게임중 퇴장을 당한일은 한번도없었다。

—감독으로나설 계획은。

▲3팀서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했다。

—언제쯤 야구계에서 은퇴하겠는가。

▲야구공이 2개로 보일때 물러나겠다。【兪奭根기자】

◇행크·아론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온 아이 ③

오목이는 깊이 모를 수렁에 빠지듯이 땅밑으로 곧장 끌려내려갔다。해빛이 빛나는 곳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는 자신이 바야흐로 죽어가는 쥐새끼만도 못하게 비참한존재로 여겨졌다。다만 진통만이 쥐새끼 따위가 감당할수있는게 아니었다。자신의 고통에대한 이런 비현실감때문에 겨우겨우 그녀는 견디어내고 있었다。

그 경황중에도 안집 여자가 신바람이나서 떠드는 소리를 오목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있었다。

『쯧쯧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사람같지않은 것들일수록 새끼 만들기 하난 급해맞다니까。급해맞게 새끼 먼저 만들 적은 언제고、그 새끼가 꾸역꾸역 비집고 나오려는걸 보고서야 명색이 애비란 게 돈을 구하러나가다니? 그러게 사람같지않은 것들하곤 애당초 상종을 안해야 하는 건데 우리 주인양반이 워낙 착해빠져서 남 딱한 사정을 박절하게 내치질못한답니다。올데갈데 없는 사람 거저로 방 빌려준 인심도 요즈음 세상에 흔치않은데 거기다가 저런 잔주접까지 치게하니 염치가없어도 분수가 있지…』

그건 오목이네를 비웃는 소리라기보다는 거기 있는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말 같았다。

오목이 듣기에 그 목소리는 매우 싱싱했다。마치 신열이 있는 살갗에 와닿는 소나기의 찬 빗줄기처럼 피부적으로 싱싱했다。

말의 뜻말고 단지 목소리만으로도 소름이 확끼쳤다。그 그녀는 방에 뉘어졌다。그녀의 치뜬 눈에 처진 벽지가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슴아슴해 보였다。

기름진 돈벌레들이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였다。그러나 돈을 구하러나간 일환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늙은 여자가 어서 올라가 김장을 하라고 딴여자들을쫓아내고 혼자서 옷소매를 걷어붙였다。그 늙은여자가 자신의 해산구완을 하게된 것을 알자 오목이는 마음이 놓이고 설움이 복받쳐 와락 그에게로 달려들어 죽자구나매달렸다。

엄마、엄마、엄마…아아。엄마… 참고 참았던 엄마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더 이상 진통과의 비현실감을 유지할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태산같은 진통을 향해 쥐새끼만도 못한 몸뚱이를 힘껏 밀어붙였다。몸뚱이는 대번에 산산이 부서졌다。

가날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늙은 여자가「아들」이라고 말했다。그녀가 대답하지않자 또 한번 말했다。

『아들이야、큰 일 했오。새댁』

『할머니야말로、할머니 신세는 안잊겠어요』

늙은여자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연탄 아궁이에서 더운 물을 퍼다가 아기를 씻기는 동안、그녀는 으깨진 벌레처럼 꿈틀꿈틀 온 방안을 기면서 미리 마련해둔 아기의 입을 것과 깔고 덮을 것을 챙겼다。

『세상에 가엾어라』

아기를 씻기다말고 늙은여자가 이렇게 탄식했다。

『왜요 할머니?』

『애기를 배고는 그저 잘 먹어야하는데、오죽 못얻어먹었으면 애가 이렇게 비리비리 말랐을까? 이엘 누가 제달 채웠다 하겠어? 난 팔삭동이도 받은일이있는데 그애도 이애보다는 실했는걸。세상에 가엾어라』

늙은 여자가 아기를 그녀 옆에 눕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 각종 유화·서양화
-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동)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기술직 사원 모집

◉자 격

1) 고졸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자.
2) 인쇄용 카메라(NUARC) 취급경험이 있거나 훈련 받을분.
3) 운전 경력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4) 신문제작및 발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수 있는분.

본사 공무국(박정서 국장)으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자필 이력서를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공무국
전화 : 533-2364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Milk Store에서 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유경험자)
오전 8시-오후 4시(Downtown지역) Full Time
전화 : 624-5817 (Mrs. 차)

Part Time Sales people for painting & other Art objects.
전화 : 920-1420(저녁시간에 영어로 문의바람)

치과에서 일하실여자 Receptionist 구함.
경험있으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며 영어를 자유로 구사하실수 있는 분이어야 함.
전화 : 233-9454 or 233-4888
Dr. Mark Kochman

"봉학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튼,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Mac's Milk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Full Time)
South of Eglinton & Kennedy
전화 : 261-4082 (Mrs. Lee)

제일식품에서 일하실 아주머니 구함.
(Full Time) 전화 : 532-1054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Western Area, 내방바람.
261 Scarllet Road at Eglinton Ave. W.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지렁이를 계속 잡으실분 원함.
전화 : 922-3061

가정에서 봉제품을 완전히 만드실분 구함.
전화 : 530-1046 (Mrs.한)

가게 Part Time 남자 Helper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7-0847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Part Time Helper 구함.
(서부지역) 전화 : 769-5956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 구함. (다운타운 지역)
낮12시~저녁8시까지. 남자 Heiper(월-토) 오후3시-11시
전화 : 921-0624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두 아기와 가사돌볼분 구함.
위치 : 나이아가라에서 20분거리 미국 버팔로 뉴욕.
전화 : 1-716-634-5839 (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아기보아 주시고 살림 약간 도와주실분 구함.
(일요일은 쉼) (Bloor & Jane)
전화 : (B)535-1210 (R)762-2562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크기 :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Convenience Store – 주매상 : $6,000
로타리오+비데오(Rent Cover) 리스: 3년+5년+5년+5년
아스킹: $65,000. 3772 Lawrence Ave. E. 내방바람.

---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나이아가라 지역 – 위치와 조건좋은 그로서리 스토아 주인 건강관계로 급매. 주매상 : 4,600-5,000불 보장
리스 : 5년+3년 2층 살림집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 요망.
전화 : 1-892-5251

VARIETY STORE 매매. (NO GROCERY)
3447 St.Clair E. at Birchmonut Rd.
전화 : 265-9000

TUCK SHOP
주매상 : $4,500. 리스 : 84년 11월까지+5년
전 화 : 272-4568 (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아파트렌트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380
(리스 한달반 남았음) 105 Westlodge Ave.
(Queen+landsdowne) 전화 : 531-0960

아파트 "Sublet" (다운타운 지역) 9월1일 입주가능.
위치 : Queen St. & Roncesvalles 1 Bed Rm/$406
(하이드로 포함) 전화 : 536-4701 Mrs. 리

"Sublet"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9월15일 입주가능함. 9개월 남았음. 한달 $378(유지비 포함)
3400 Weston Rd & Finch 전화 : 222-3877 (Miss 김)

집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4시이후 연락바람)

Town House 방세 놓음.(Don Mills 지역)
직장여성이나 혼자 사시는 여자분 환영($170/M)
Hwy 401 & D.V.P.에 가까움. 전화: 449-1913 (오후8시까지)

셋방 있음(1 Bed Rm+Kitchen) $200/M.
9월1일 입주가능. 하이드로 포함.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1:00p.m.-10:00p.m.) Mr. Ki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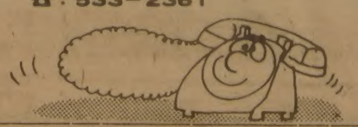
4 Bed Room 집전체를 싸게 세놉니다.
Branpton 전화 : 1-632-9313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illegible]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illegible] 각종 생선.
▲싱싱한 회 [illegible]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